

안녕

An-nyeong

우송한국어교육원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우송학원 60주년 기념호 안녕 21호 특집 기획

안녕 특집 1 - 우송학원 60주년 행사
安宁特辑 1- 又松学院60周年

우송학원 60주년 기념 동릉대 총장 Interview
又松学院60周年铜陵大学校长采访

우송 60주년 축시, 안녕공모 당선작
又松大学60周年祝诗, 「安宁」征文入围作品

우송제, 솔콘서트 又松节, sol音乐会
안녕 특집 2 - 안녕 한국어 쓰기 공모전 당선작
安宁特辑 2 - 「安宁」韩语写作征文入围作品

안녕 특집 3 - 졸업선배글
安宁特辑 3 - 毕业校友文选

안녕! essay 안녕! essay

안녕 특집 4 - 안녕특辑 4
언어연수 语言研修 공자학원 孔子学院

안녕 특집 5 안녕특辑 4
유학생 말하기 강화 프로그램 留学生演讲能力强化班

터줏대감 资深学子
한국 유학생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成功在韩国留学

안녕 NEWS 「安宁」新闻

안녕 in campus 「安宁」校园之声

안녕 in the world 「安宁」世界之声

우송 culture camp 又松文化camp

오스드 우송대학교
WOOSONG UNIVERSITY

C O N T E N T S

안녕
An-nyeong

통권 제21호 2014 DECEMBER
우송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뉴스레터



통권 제21호 2014 겨울호

- 발행인 : 이근태
- 편집인 : 이강록
- 편집지도교수 : 이주리, 윤남희, 하재선, 문진형
- 편집장 : 루찬선
- 편집위원 : 왓싸폰, 미렐라 올리베이라, 고귀자, 쇼후루흐, 육량보, 송뢰뢰, 라인준, 장혜, 잔휴빈
- 감수 : 유현 (刘轩) 학생코칭센터 상담센터
- 발행일 : 2014. 12. 31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300-719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55-3
TEL. 042.629.6697~8

Issue 1 (애깃거리 1)

04 안녕 특집 1 – 우송학원 60주년 행사 安宁特辑1-又松学院60周年

특성화 60년, 글로벌 100년
特性化 60年 国际化100年

06 우송학원 60주년 기념 동릉대 총장 Interview 又松学院60周年铜陵大学校长采访

08 우송 60주년 축시, 안녕공모 당선작 又松大学60周年祝诗, 「安宁」征文入围作品

새날을 맞이하는 사람 있었네 迎着朝阳而起的人们
청춘 青春

10 우송제, 솔콘서트 又松节, sol音乐会

Culture map (즐길거리 1)

12 안녕 특집 2 – 안녕 한국어 쓰기 공모전 당선작 安宁特辑 2 - 「安宁」韩语写作征文入围作品

공모전 원고 당선수필, 당선시
征文原稿入围随笔、诗词

Issue 2 (애깃거리 2)

16 안녕 특집 3 – 졸업선배글 安宁特辑 3 - 毕业校友文选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졸업생 특집
印尼, 越南, 老挝毕业校友文选特辑

20 안녕! essay 安宁! essay 한국에서의 일상 韩国的日常生活

Culture map (즐길거리 2)

34 안녕 특집 4 安宁特辑 4

언어연수 语言研修
공자학원 孔子学院

38 안녕 특집 5 安宁特辑 4

유학생 말하기 강화 프로그램
留学生演讲能力强化班

39 터줏대감 资深学子

한국 유학생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成功在韩留学

News (들을거리)

40 안녕 사진공모전 수상작 「安宁」照片展获奖作品

41 안녕 NEWS 「安宁」新闻

48 안녕 in campus 「安宁」校园之声

50 안녕 in the world 「安宁」世界之声 해외 교육원 소식 海外教育院消息栏

54 우송 culture camp 又松文化camp



우송 60주년과 함께 스물 한번째 「안녕」 출간을 자축합니다.

이렇게 여기 우리의 한 학기만큼의 삶을 가지런히 모아 놓습니다.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소식들, 그리고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볼 내용들을 제대로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의 빛나는 생각들, 아름다운 추억들을 제대로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모쪼록 아쉬움의 행간을 너그러이 채워주시고, 부디 「안녕」이 밑거름이 되어 풍요로운 유학생들 하시길 기원합니다.

热烈祝贺又松60周年校庆暨安宁第21期出版。

我们愿把一学期共同经历过的每一天聚集起来并展现给大家。努力把开心的、愉快的、欢乐的，认真思考过的内容丝毫不差地表现出来。在此，也对无法将每一位朋友、前辈以及后辈的精彩故事展现给大家而深表遗憾。我们将大家美好的回忆记入到安宁里，衷心祝愿这能成为大家难忘留学生活的一部分。

60

WOOSONG

특성화 60년 글로벌 100년
特性化 60年 国际化100年



우송의 새로운 모토(Motto)는 '특성화 60년 글로벌 100년'이다. 세상의 각계각층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특성화 60년을 경영해온 우송의 역사를 정리하고, 글로벌 100년의 우송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60주년 기념식이 9월 22일, 우송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사장님은 지나온 60년을 회고하였다. 특히 고 김정우 초대 이사장님의 교육 신념을 떠올리고 앞으로의 100년 우송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글로벌 100년'으로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학교와 함께한 교직원들, 우송의 근간을 이루는 학생들, 졸업생들, 우송 글로벌화의 선두에 있는 유학생들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송의 100년을 함께 열어가자는 당부를 하였다.

이날 우송학원을 위해 힘쓴 분들을 위한 감사패가 수여되었는데 존 앤티켓 총장님, 이근태 한국어교육원 원장님, 김선종 우송정보대 총장님, 박승익 교양교육원장님이 수여하였다. 이외에도 교직원들과 우송을 빛낸 졸업생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우송대학교를 졸업한 서운비(국제경영 2009 졸업, 부동 산 대표) 씨가 학교측에 60만 위안(원화 환산 1억)을 장학금으로 기탁하였다. 모교의 뜻깊은 60주년을 축하하여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게 된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학교 측에 기탁된 이 장학금은 유학사업의 성공적 사례이며 동시에 앞으로 국제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내외 인사들의 축하와 공로패 전달 등의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에서는 국제화에 걸맞은 산동예술대학교 예술단의 성대한 공연이 펼쳐졌다. 우송대학교 60주년 축하의 의미를 담은 중국의 전통 무용과 성악, 기악 합주, 남성 군무로 구성되었다.

특히 젊은 무희들이 펼치는 생기발랄한 이국적 군무는 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어 여성 소프라노와 남성 바리톤 독창은 세계적 명곡과 아울러 한국가곡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중국 비파 합주와 전통 연주 협연은 수많은 관중들을 사로잡고 우송의 힘찬 미래 도약을 기원하는 젊은 남성들의 힘찬 군무는 글로벌100년을 기약하는 우송의 새로운 출발에 역동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又松大学新主题既定为“特性化60年, 国际化100年”。为了培养世界各地所需要的人才, 在这里, 用心经营了60年的又松大学对历史进行了整理, 在艺术馆隆重地举行了纪念仪式并宣布放眼展望未来100年国际化的全新发展观。

在纪念仪式上, 理事长先生带着我们对过去的六十年进行了回顾总结, 和大家一起回忆了首任理事长金正雨先生的教育理念, 并向海内外阐明了又松未来100年的的教育发展方向与目标。理事长先生向这么多年一起奋斗而来的老师, 在校学生, 毕业生以及走在又松国际化前端的留学生们致敬, 并表示希望大家伙能一起为又松向后100年的发展而努力。在这一天, 又松大学向为了又松学院的发展而鞠躬尽瘁的人士颁发了感谢牌以表真心的感谢。



他们有, 又松大学校长约翰.埃德加.恩迪科特, 韩国语教育院院长李根泰, 又松信息大校长金善宗, 教养教育院院长朴承翼等。此外, 又松大学也向各教职员以及优秀又松毕业生颁发了感谢牌。

在这一天, 又松大学毕业生徐云飛先生(国际经营2009届毕业生 中国金峰房产 经理)为庆祝母校又松大学60周年, 委托送来了60万元(折合韩币1亿元)的奖学金。徐云飛先生表示, 能在母校60周年校庆的日子里递上这么一份贺礼而感到骄傲。又松大学能得到这项奖学金基金深刻体现出又松大学留学产业工作的成功, 同时这也将成为国际化发展道路上的指向标。

随着国内外送来的功劳牌陆续到达, 活动的第一部分结束, 随之迎来的是与国际化相互交融的山东艺术大学艺术团给大家带来的盛大演出。演出囊括了为祝贺又松大学60周年所精心准备的传统舞龙舞狮、声乐、器乐合奏、男子群舞等精彩节目。

在表演项目中, 带有异国风情的歌舞表演给观众们带去了别样的饕餮盛宴。

新颖的冲击感, 使大家留下了最深刻的印象。紧接其后的有女子高音、男子中音独创的世界名曲与韩国歌曲共同编制而成的节目表演也得到了学生们最热烈的欢呼声。

中国琵琶合奏与传统演奏牢牢地抓住了观众的眼球, 祈愿着又松大学充满希望的美好未来的年轻男子群舞则为又松大学100年国际化注入了生机的活力。

우송학원 60주년 기념 - 동릉대 정가운 총장 인터뷰

又松学院60周年铜陵大学丁家云校长采访

Interview



우송 60주년과 비전

[질문] : 우송학원은 올해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총장님] : 우송학원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최근 60년은 거대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교통과 발전의 시기에 우송학원이 한국과 지역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회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며, 교육은 이러한 면에서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60년도 이와 같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릉대학교와 함께 성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又松六十周年与愿景

提问 : 又松学院今年迎来了60周年,请问有什么祝福语想要说吗?

校长 : 祝贺又松学院60周年。这也是韩国发生翻天覆地变化的六十年。在这苦痛和发展并存的时期里,又松学院对韩国和地区社会做出了极大的贡献。为在困难中前行的社会培养并输出人才算得上真正的教育,做到这种程度的教育是值得被掌声所鼓励的!希望又松能迎来崭新的六十年。同时也希望又松的成长能与铜陵大学一起并肩进行!

[질문] : 동릉과 동릉대학교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와 자량을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 동릉은 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예부터 동(銅)의 도시라 불리었고 현재 역시 중국내 동의 주생산지로 광공업부문이 매우 발달한 도시입니다. 인구는 비록 74만 규모의 중소도시지만 안휘성에서 경제가 발달한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복한 동릉, 원대한 동릉, 섬세한 동릉을 목표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희 동릉대학교 역시 젊은 학교입니다. 2002년 정식 4년제 본과 대학으로 승급되었으며 현재 응용형 인재 배양을 목표로 동릉지방의 특색을 살린 개방형 교육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릉대학교는 신입생 모집 및 교육설비, 취업에 있어서 매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수치가 대학의 역량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 첫 번째는 대학교 일지망 지원율입니다. 동릉대학교는 안휘성의 다른 이본(二本)대학들보다 평균 점수가 20점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어 일지망 지원율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척도인 취업을 역시 95% 이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릉대학교는 경제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따른 응용형 인재 배양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고민

[질문] : 중국 대학생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 모든 학생들은 다 각자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처럼 경제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취업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아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취업

[질문] : 한국 역시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럼 총장님께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 먼저 당연히 그 일을 실제 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지요. 하지만 제 생각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좋은 인격을 갖추고 거기에 노력을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유학생에게 전하는 말

[질문] : 대학 때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 대학생 때는 반드시 자신의 인생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계획에 따라 한발한발 나아가야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공부 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야 지적체(智德体)를 갖춘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면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목표가 없으면 이상도 꿈도 없습니다.



提问 : 请为我们还不太了解铜陵的同学,对铜陵和铜陵大学做一下简单的介绍。

校长 : 位于安徽的铜陵,虽然是一座年轻的城市,但却有着悠久的历史,被称为中国古铜之都,还是当代铜基地。虽然是只有74万人口的小城市,但她还是一座现代的港口及工矿城市,经济比较发达。铜陵要打造幸福铜陵、大气铜陵、精致铜陵。铜陵学院作为一所年轻的本科高校,有十多年的本科教育历史,2002年,正式升为本科高校。铜陵学院致力于培养应用型人才,办学定位明确:应用型、地方性、开放式。今年来,学院发展势头良好,招生形势非常好。一个学校的办学质量我觉得主要体现在两个‘率’上,一.第一志愿率,高出安徽二本分数线20分以上;二.就业率在95%以上。铜陵学院按照应用型人才的培养目标在办学定位上非常清楚,我们对人才的培养方案随着经济的发展和社會的需求正不断进行修订。

提问 : 您觉得中国大学生最大的烦恼是什么?

校长 : 不同的学生有不同的烦恼,比如说经济烦恼,但是现代大学生大部分的烦恼应该要数就业烦恼,很难找到称心如意的作品。

提问 : 果然在韩国就业难这个社会性的难题还是得数第一位!那么,校长先生能否对为找到好工作我们的学生需具备哪些能力,这一点发表一些观点和看法。

校长 : 首先要具备扎实的专业技能。与此同时,我觉得更为重要的是要具备较高的素养,加上自己的努力,只要自己肯努力的话,那么是不难找到工作的。

提问 : 您认为大学时期一定要做的事是什么?

校长 : 现在的大学生一定要会规划自己的人生,要有自己的目标,然后按着规划一步步的努力,最终达到目标。学生就应该好好学习,并且不断丰富业余生活,做到德智体全面发展。作为大学生一定要有目标,不能得过且过。人没有目标就没有理想,进而就会失去奋斗的方向。

提问 : 最后请您对我们各个国家的留学生说一些话。

校长 : 学好专业知识的同时也要拥有健康的身体。学习娱乐两不误,不断的丰富完善自己,不断拓宽自己的眼界,成为拥有国际思维的优秀人才。



인터뷰 : 한우수



촬영 : 동릉대제공

새날을 맞이하는 사람 있었네

가난을 이웃삼아 살던 사람들
순하디 순한 사람들
한발, 그늘진 동쪽 들
느린 잠에 빠져있던 이 들에
부지런히 닭우는 소리 들리고
새날을 맞이하는 이 있었네

신산(辛酸)한 역사에 휩쓸리고
사리(事理)엔 어둑한 사람들
무명(無明)의 잠에서 깨어나라
부지런히 종을 울리고
미명이 밝아오는 동쪽 들
살아보려는 사람들
뭣 쥐어주고
호미 들려주고
새날을 맞이하는 이 있었네

너른 밭, 어둡던 동쪽 들
부지런히 닭이 울고
어둡디 어두운 사람들
모여들어 자립의 불 밝히고
순하디 순한 사람들 모여들어
단정의 온기로 거친 땅 다스리고
독실히 독실히 행하여
새날을 맞이하네

이 어엿한 사람들
저마다의 가슴에
자립, 단정, 독행의 불
온 세상 어두운 구석구석 밝혀들고
세상을 깨우는 종을 울리고
새날을 열어가네
새 세상을 열어가네

》 한국어교육원 교수 이강록

迎着朝阳而起的人们

和贫穷相伴生活着的人们
多么纯洁的人们啊
站在田野中眺望，被黑暗笼罩着的东方
沉睡未醒的人们
在勤劳的鸡鸣声中醒来
迎着朝阳而起的人们那

被辛酸历史而席卷
不明事理的人们
从无知的梦中醒来吧
勤劳的钟声在空中响起
在黎明中逐渐亮起的东方
那些为了生活而努力的人们
教他们握起手中的笔
让他们举起手中的锄头
迎着朝阳而起的人们那

辽阔的田野，被黑暗笼罩过的东方
雄鸡鸣声响过的天空
在黑暗中沉寂着的人们那
点亮聚集自立的火花
纯洁的人们聚集起来
用端正的热情治理杂乱的田地
虔诚笃实地行动起来
迎着朝阳

堂堂正正的人们
在每一个人的心里
自立，端正，笃行的火花
照亮世界每个角落
敲响唤醒世界的钟声
翻开了新的篇章
通向新的世界



청춘

어린 시절의 행복은 순간에 사라졌다.
성장의 고통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흐르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설령 칠흑 속 어둠이라 해도
우리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
그냥 부지런히 걸을 뿐이다.

더듬으며, 적응하며, 익숙해지며
칠흑이 대낮같이 느껴지도록
빛이 없는데도 쉬지 않고 걷는다.
어린 시절 순수함은 이미 웃음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점점 느낀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우리는 칠흑 속을 걷고 걷고 또 걷는다.

꿈을 좇는 사람은 칠흑 속에 빛이 있다.
빛과 함께 걷고 걸으면
우리는 빛을 좇는 사람이 된다.
문득 어린 시절 마음 속 심었던 꿈이 떠오른다.



》 방송미디어학부 3학년 대시원

青春

童年的幸福转瞬早已消失
成长的烦恼至今也未结束
时间对每个人都是那么的公平
因为它流逝了就不会再回来

我们前进着
哪怕是在黑暗中
我们不知道向前的途中会遇见什么
就是这样执拗的前进着

摸索着，适应着，习惯着
把黑夜当做了白昼
哪怕没有光亮依然可以行走
年少时的纯真如今已变成了笑话

我们渐渐发现
这些我们都不能自己决定
于是就只能在黑暗中继续
走着，走着，走着

追梦人就是在黑暗中的一道光
与光一起同行
会让你也成为个追梦人
突然你就会发现
在你心中那曾经梦想又一次被种下

우송제, 솔콘서트 又松节, sol音乐会



우송 6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솔콘서트가 9월 25일 목요일 오후 6시 우송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번 솔콘서트와 우송축제는 K-pop한류스타들의 잔치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첫째 날은 주목받고 있는 걸그룹인 에이핑크 Apink와 서인국이 찾아주었고 둘째 날은 아이유와 스윗소로우, 제국의 아이들, 허각, 김장훈밴드가 우송대학교를 찾아 주었다.

첫째 날 에이핑크와 서인국의 뜨거운 무대는 젊은 우송인들의 열정에 불을 붙였다. 둘째 날, 스윗소로우의 달콤한 발라드로 관중을 모으고 제국의 아이들이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다면 아이유의 무대는 우송 콘서트를 정점으로 올려놓았다. 수천 명의 관중들이 아이유를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고 그 열기를 이어받은 김장훈밴드가 모든 이들을 기립하게 만들었다. 이날 공연은 출연 가수 하나하나가 굳이 콘서트장을 찾아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열정적인 공연을 펼쳐주었다.

이번 공연의 기억을 되살려 우리 학교를 찾아준 K-pop스타들의 면모를 소개 하고자 한다.

于9月25日(周四)下午六点,在又松大学运动场隆重举行了又松大学六十周年校庆庆祝活动。如果把这次的Sol音乐会和又松K-pop说是韩流盛典那定是当之无愧。第一天是Apink和徐仁国,第二天则是国民妹妹IU和SWEET SORROW组合,还有金长勋等知名歌手也都参加了又松校庆。Apink和徐仁国作为首日的表演嘉宾,可谓点燃了又松年轻学子们的热情。SWEET SORROW组合优美的嗓音和完美的合音打动了场下的所有听众。帝国的孩子们把晚会渐渐推向高潮,而IU的登场则把晚会推向了最高潮。到场的所有观众跟随着IU的节奏唱着、呐喊着。最后登场的是被誉为演唱会之王的金长勋和他的乐队在此次sol音乐节中献上了精彩绝伦的表演。此次Sol音乐会为大家提供了不必千辛万苦地挤着去看演唱会,在家门口就能享受到如此视觉盛宴。那么,让我们一起来了解一下这次参加校庆的明星吧!



첫날 우리를 찾은 K-pop스타는 걸그룹 에이핑크Apink이다. 2011년 4월 첫번째 싱글 seven springs of Apink로 데뷔한 6인조 여성 댄스그룹으로 잘 알려진 노래로는 'Mr.Chu'이며 최근에는 'NoNoNo'가 인기를 끌고 있다. 데뷔 때부터 주요 신인상을 수상 해왔으며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그룹이다.

Apink - 第一天来到我们学校的是Apink组合。2011年4月even springs of Apink六人女子组合以红遍大江南北的Mr.Chu和NoNoNo获得了大众的瞩目。初次亮相就获得了新人奖的Apink,在今后的表现更教人期待。



2008년 데뷔한 아이유는 '좋은 날', '잔소리'로 스타의 자리에 오른 대표적인 한류가수이다. 3옥타브를 보여주는 라이브를 들으면 짜릿한 전율을 느낄 수 있다. 데뷔 후 거의 모든 상을 석권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귀엽게 생긴 외모 때문에 국민여동생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분홍신'을 발표하여 공중파 및 케이블TV 주요 음악방송에서 4회에 걸쳐 1위 수상을 하기도 했다.

IU是在2008年凭借《美好的一天》,《唠叨》登上巨星宝座的具有代表性的韩流女歌手。横跨3音度的嗓音能使听众全身麻酥。在初出茅庐之后几乎包揽了歌坛全部奖项,凭借可爱的外表获得了国民妹妹的称号。最近一首《粉红色的高跟鞋》在各大排行榜已经音乐榜连续四次据登榜首。



2010년에 엠넷 슈퍼스타K 2에서 우승을 하였다. 어려운 가정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도 기대한 대로 훌륭한 가창력과 전달력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许阁 - 2010年在M-net第二季Super-K选秀上优胜脱颖而出。有着悲伤家庭史的他,被称之为韩国的保罗·波茨。在此次表演中他也以优秀的歌唱能力以及感情传递能力成功打动了大家。



서인국은 2009년 슈퍼스타K 우승자로 잘 알려져 있다. 노래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많은 드라마, 영화에 출연하여 연기자로서도 재능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많은 여성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싱글 '봄타나봐'로 새로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徐仁国 - 徐仁国在2009年super-K节目里脱颖而出,不仅在歌曲方面有所成就,在很多韩国电视连续剧里我们也能经常看到他的身影,并因此获得很多女粉丝的崇拜。最近的“乘着春风”更是受到了许多粉丝的追捧。



콘서트의 제왕으로 알려진 김장훈과 그의 밴드는 이번 솔콘서트에서도 신나는 무대를 연출했다. 김장훈은 싸이와의 합동 공연과 다양한 봉사활동으로도 유명하다.

金长勋乐队 - 被誉为演唱会之王的金长勋和他的乐队在此次sol音乐节中献上了精彩绝伦的表演。金长勋有和鸟叔一起搭档的经历,也因参加各种社会公益活动而家喻户晓



ZE:A(제국의아이들)은 9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이다. 2010년 1월 15일에 KBS 뮤직뱅크로 데뷔하였다. 제국의 아이들은 '미아', '하모니', '안아보자' 등의 히트곡으로 많은 소녀팬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가워 고마워'로 인기를 끌고 있다.

帝国的孩子们 - ZE:A是由9名男子共同组成的音乐组合。2010年1月15日首次于KBS音乐盛典中亮相。帝国的孩子们们的歌曲中以《迷路儿童》,《和谐》,《抱一抱》等超人气歌曲赢得了数万名少女的放心,而在最近又以《高兴与感谢》获得了令人赞叹的成绩。

안녕 한국어 쓰기 공모전 당선작

「安宁」韩语写作征文入围作品



인생의 망원경

人生的望远镜

어렸을 때부터 세계지도 앞에 서면 항상 고향을 떠나 밖의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나고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의 길이는 연장할 수 없지만, 생명의 넓이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히 익숙한 고향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반면, 밖에서 다채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예를 들면 눈앞의 바다를 볼 때 자신의 눈으로만 보면 바다에 불과하지만, 망원경을 통해서 본다면 저 멀리 있는 일본의 아름다운 섬을 볼 수 있다. 이 경우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지의 세계를 탐색한다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새로운 것을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가슴속의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일 것이다. 그러므로 둘도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겁게 살자! 우리는 젊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여행하고,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철도건설학과 3학년 진건순

小时候,每当我站在地图前,就时常想离开故乡,去经历更宽广的世界,感受那些丰富多彩的文化。当时我时常不自觉地问自己,我们来到这个世界的意义到底是什么。随着年龄的增长,我渐渐地找到了这个问题的答案。虽然我们无法增加我们生命的长度,但我们可以增加我们生命的宽度。但是,大部分人一生都选择永远安静地活在自己熟悉的故乡,放弃了出去接触更加多彩世界的机会。

就像现在,我站在展望台上,光用眼睛,我只能看到我面前的这片大海,但倘若我用这望远镜看,我就能看到更远处那座美丽的日本小岛。和这种情况一样,在生活中,我们如果能积极地去探索未知的世界,我们就能了解到以前不知道的事,这样一来,我们接触的新事物越多,我们就越能感知我们与这个世界的关系,就能知道别人尚未了解的事情。

在我们人生的最后一刻,留下的东西能有什么呢?那正是存在我们心底的那些无法忘怀珍贵的记忆。因此,为了我们这仅有一次的生命,听从自己内心的声音,享受生命吧!从现在开始,趁着年轻,去自己想去的旅行,去做自己想做的事!只有这样,我们才能给我们的生命,留下更多,更美好的记忆。



안녕, 안녕, 안녕...

再见, 再见, 再见



» 솔브릿지 4학년 슈슈

우리 친구들은 '유학'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 나는 먼저 '성장'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나는 2011년 8월 18일에 한국에 유학을 왔다. 그때는 고등학교에서 3개월밖에 한국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 심지어 우리 엄마는 내가 한국으로 오면 날 공항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하지만 난 부모님의 눈물엔 아랑곳하지 않고 미래에 펼쳐질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한 일이 많았다. 한번은 아버지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해서 내가 골라 놓았던 코트를 다른 손님이 가지고 가 버렸다. 그 코트는 한 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사지 못하게 되었다. 너무 속상해서 집에 와서 혼자 펄펄 울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친절한 선생님을 따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마음이 통하는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이제는 한국어도 많이 늘었다. 원래 중국에 있을 때 집안일은 물론이고 내 방 청소조차도 엄마가 다 해주셨는데 한국에 온 후에는 이런 저런 일들을 직접 하게 되었다. 이런 큰 변화는 다 유학 덕분인 것 같다. 유학을 보내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 뿐만 아니라 유학 생활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학교에서는 좋은 교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학교 밖에서는 친절한 가게 아저씨, 식당 아저씨 등...

2학년 때였다.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 지갑에는 카드와 현금도 많이 있었다. 나는 울면서 친구랑 여기저기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기숙사에 돌아갔을 때 어떤 사람이 내 지갑을 가지고 기숙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커피숍에서 내 지갑을 주웠는데 신분증에 있는 주소를 보고 학교 기숙사를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고맙고 미안했다. 그 날 내 지갑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수양 언니이다. 그 날 이후 우리는 좋은 친구, 좋은 자매가 되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서 한국에서 공부할 시간을 이제 한 학기만 남겨놓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잊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4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내 자신도 많이 성숙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유학을 하면서 얻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유학'하면 '성장'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만약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4년 전 공항에서 내 손을 잡고 울던 엄마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엄마! 잘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많이 아쉽지만 나의 유학 생활과도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되었다.

"안녕, 유학 생활! 안녕, 한국! 안녕, 내 젊음!"

大家在提到“留学”的时候脑子里最先浮现出什么呢?我最先想到的是“成长”。我在2011年8月18日来到韩国留学。那个时候我只在高中学过3个月的韩语,所以父母对于将来我能否一个人好好生活很担心,甚至我的妈妈在我出发的那天在机场痛哭。但是那个时候年轻且热血沸腾的我却一点也不害怕。看见父母的眼泪也并不关心,只对自己的生活充满了兴趣。在前往韩国的飞机上,我对未来充满了幻想。最初的时候,因为语言不通有很多郁闷的事情。有一次我去百货商店给爸爸买衣服,没想到因为语言不通被别人抢先买走了我看中的衣服。

从那之后我就发誓要好好学习韩语。于是一边跟着老师用功学习也一边和志同道合的韩国朋友常常用韩语联系交谈。现在韩语实力已经上升了好多。

而且,在我还没出国的时候家务事一点也不做,但是到了韩国之后却变成什么事都要自己亲力亲为。于是刚开始的时候因为很多事情都不懂所以做好的事情一件也没有。比如之前都是我妈妈帮助我收拾房间,所以刚来韩国的时候我连怎么收拾房间都不知道。

但是经过在韩国生活的四年,我学会了很多。现在不论什么事情,从自己照顾自己生活到自我学习管理,我全部都得心应手。这些巨大的变化全部是因为留学。所以我对送我来留学的父母充满了感激。

还有,我也是因为留学认识很多善良的人们。在学校里有亲切的老师和朋友,学校外也有很多热心的人。

我大二的时候有一天在学校前面等朋友,突然发现钱包不见了。钱包里装着很多的证件还有钱,我和朋友仔仔细细找了好久却一无所获。我天生性格着急,当时就急哭了。没想到当我们回到宿舍的时候,有一个人已经拿着我的钱包在宿舍门前等了好久。原来她在咖啡厅里捡到我的钱包后就按照里面证件上写的地址找了过来。这个人就是秀英姐姐,我们后来成为了很好的朋友。我到现在都因为那个时候让她等了好几个小时而感到抱歉。

随着时间的流逝,现在我在韩国只剩下了最后一个学期。四年里发生的事情历历在目,没有办法忘记。4年里我学会了很多,收获了很多,心理也成长成熟了很多。这些全部是留学带给我的。所以一想起留学,我就想到成长。

假如时间可以倒流回到过去的话,我要对那个时候在机场大哭的妈妈送上安慰,告诉她:“别担心,我可以!”

现在终于到了告别的时刻。请让我用这样的方式道别:

再见,留学生涯;

再见,韩国;

再见,我的青春!



학습수기
가 작

한국어 학습 요령 韩语学习要领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와 습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운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어를 공부했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한국어 학습 요령에 대해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발음하는 법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의 발음을 주의해서 듣고 정확하게 따라해야 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듣기 CD를 따라하고 반복 연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발음을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휘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단어를 모르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어나 다른 언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꼭 많이 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문법입니다. 발음과 단어를 배운 후에는 문법을 배우야 합니다. 그런데 문법을 배우는 데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법책을 많이 읽고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혼자서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친구나 선생님에게 다시 물어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억양입니다. 언어를 공부할 때 말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한국어와 관계있는 라디오를 자주 들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라디오를 들으면 문법과 발음뿐만 아니라 억양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친구가 있다면 어느새 한국 사람처럼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은 문화입니다. 한국어를 진정 잘하고 싶다면 한국 역사하고 문화를 잘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아주 중시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교류할 때 꼭 주의해야 합니다. 존댓말과 반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한국어를 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본 한국어 학습 요령입니다.

学习一门语言的时候, 对所该语言有兴趣固然重要, 除此之外, 学习态度和习惯也很重要。我学习韩语已经有两年的时间了, 通过这段时间的韩语学习, 我想和大家分享一些我在学习中获得的心得。

想学好韩语, 第一, 掌握好发音很重要。首先上课的时候我们要注意听老师的发音并且正确的跟着老师念。课后我们可以去听书附带的CD然后反复练习我们的发音。长此以往, 我们的韩语发音就能很标准了。

第二, 我们必须掌握大量的韩语词汇。如果连单词都不知道, 怎样能够理解文章, 又怎样和别人交流沟通呢? 所以大家想学好一门语言的话, 就必须积累大量的词汇。虽然背诵单词不是一件容易的事并且可能会花费你大量的时间, 但是这是学习任何语言的最基本哦。

第三是语法。学习完发音和累积了一定的单词后就要该开始学习语法了。但是学习韩语语法学习没有什么特别的方法, 只有买一些韩文语法书, 大量看和理解了。如果一个人学习的时候遇到了一些问题, 可以向老师和同学请教确认。

第四是语调。学习一门语言的时候语调的学习也同样重要。这时候如果听一些韩语有关的电台的话帮助会很大。听韩语电台的时候, 不仅要注意听他的发音和语法, 更要好好留心他的韩文语调。如果有韩国朋友的话, 一定要和韩国朋友多交流, 多说话。如果这样做的话, 慢慢的你会发现你会像韩国人一样能说一口流利的韩语了。

最后就是要了解这个国家的文化了。想真正学好韩语的话, 对于韩国的历史和文化的学习也不能忽视哦。比如说韩国这个国家很注重礼仪, 所以和韩国人交流的时候一定要注意了, 如果分不清韩语中的敬语和平语并且错误使用的话, 说学好了韩语这是不可能的。以上就是我在韩语学习中的一些经验和心得了, 如果大家也要开始学习韩语的话, 希望这篇文章能给大家一些帮助。



» 국제경영학부 3학년 가영

은하

네의 이름은 은하이다
너는 바다가 좋다고 한다

네 집은 바다 이쪽이고
내 집은 바다 저쪽이지만

네 손의 따뜻한 온기와
너를 처음 만났을 때의
해맑은 웃음은
아직도 내 가슴에서 숨 쉬고 있다

수많은 별이 반짝이는 은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은하가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내 집은 바다 이쪽이고
네 집은 바다 저쪽이다

은하는 넓어서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은하의 별 하나일 뿐이다

银河

你的名字叫做银河
你说过你喜欢大海但
你的家在大海的这边
我的家在大海的那边
尽管如此
我能分明地感受到你手心的温度
初次看到你时
记忆中你明朗的笑容
仍在我脑中徘徊
银河因为有无数颗闪耀的星星
不知道有多美
银河因为在我身边
不知道有多美
不久我不得不离开了然后
我家在大海的这边
你家在大海的那边
银河太浩瀚了终究不是我的
我只是银河中的一颗星



» 국제경영학과 4학년 송리뢰



시
가 작

졸업선배글

毕业校友文选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졸업생 특집
印尼, 越南, 老挝毕业校友文选特辑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우송대학교를 졸업한 인도네시아 유학생 아울리아 주내디라고 합니다. 나이는 36세이고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한국에 온 지 11년이 되었고 그동안 공부는 물론이고 이것저것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기 전에 대전에 살았습니다. 그 동안에 우송대학교 TESOL 대학원 영어 교육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워낙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석사 과정 마치자마자 충남대학교에서 영어 박사를 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학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언어는 물론 문화차이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후배님들처럼 자리에 앉아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것을 원합니다. 학창시절로 돌아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용돈을 벌기 위해 스티커와 학교 장비를 팔았고 대학시절엔 운동과 합창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옷을 팔고 전시회에서 판매 직원으로 일했으며 결혼식 도우미로도 일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산적인 활동을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하였고, 토스트 마스터라는 연설클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콤도라는 무술, 킥복싱, 한국요리교실, 뜨개질, 춤, 컴퓨터 그리고 일본어교실에도 참가했었습니다. 이것들은 저의 경험입니다.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서 경험을 더 쌓기 위하여 방학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안 가고 계속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한국대학생들이 영어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가진 지식으로 한국에서 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에서 취직하였습니다. 취직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라든가 창업을 통해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자유롭게 독립적인 일을 원해서 freelance방식으로 일해 왔습니다. 대부분 하는 일이 한국대학생들에게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치고, 여행가이드 하고, 통·번역 업무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국제 forum 같은 한시적 지원자로도 일해 봤습니다. Freelance로 일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일이 많지만 어떤 때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약점이라고 생각 안하고 오히려 저의 “내일”을 먹고 살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를 마치고 인도네시아어 및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책을 지었습니다. 저의 책 중 한국어 또는 인도네시아어 관련된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인도네시아어 대화 읽기 중급 (2)인도네시아어-한국어 단어장 (3)한국어-인도네시아어 단어장 (4)인도네시아어 노래 (5)My 20' in Korea-Fighting (6)활용 회화 인도네시아어-한국어입니다.

>> 아우리아 주내디(외국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TV 방송) - 인도네시아



인생 motto:

1. 자기 자신을 믿어라
2. 그냥 해라 조금씩 해라
3. 열심히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나 도움을 주라
4. 슬플 때 계속 슬퍼하지 말고 대신에 다른 불쌍한 사람이나 애완동물들한테 행복을 주라
5.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해라

Motto hidup:

1. Percaya pada diri sendiri
2. Walaupun sedikit lakukamlah.
3. Beri kesempatan dan bantuan pada orang yang telah bekerja keras
4. Jangan larut dalam kesedihan, tapi berikan kebahagiaan pada orang atau hewan yang patut dibelaskasih
5. Terakhir, selalu berterimakasih dan bersyukur

Halo adik adik kelasku!

Saya adalah mahasiswa Indonesia, Aulia Junaedi, alumni Universitas Woosong, Daejeon. Umur saya 36 tahun, sekarang saya tinggal di Seoul. Ini adalah tahun ke 11 saya tinggal di Korea Selatan. Waktu yang cukup lama tersebut tidak hanya saya gunakan untuk belajar tetapi juga untuk menimba pengalaman. Saya lulus dari jurusan Bahasa Inggris program master (TESOL) Universitas Woosong, karena saya suka pelajaran Bahasa Inggris, saya melanjutkan program Ph. D saya di jurusan bahasa Inggris di Universitas Chungnam..

Kalian semua pasti tahu bahwa kuliah di negara lain itu tidak mudah. Perbedaan bahasa dan budaya mempersulit kehidupan saya selama saya duduk di bangku perkuliahan. Tapi, andaikan waktu ini bisa diulang saya ingin seperti adik-adik kelas yang saat ini hanya belajar dan mendengarkan guru di kelas. Karena itu adalah masa-masa yang menurut saya mudah. Bila flash back sebentar, saat saya duduk di bangku sekolah menengah (SMP) saya sudah memulai bekerja untuk mendapatkan uang jajan. Saat itu saya berjualan sticker, peralatan tulis, dan peralatan olahraga. Selain itu sewaktu saya di Indonesia saya juga berjualan baju, ikut bekerja di pameran dan juga menjadi seorang helper dari sebuah pesta pernikahan. Oleh karena itu selamam di Korea pun saya berfikir untuk selalu produktif, dan saya mengikuti kegiatan “Toast Master”. Selain itu saya juga aktif di kegiatan-kegiatan lainnya. Itulah pengalaman saya.

Setelah lulus dari program Ph. D untuk memperkaya pengalaman saya tetap tinggal di Indonesia, sesekali pulang jika libur musim panas atau dingin. Hal itu karena, saya melihat fenomena banyak dari mahasiswa Korea yang kesulitan dalam belajar Bahasa Inggris. Selain itu dengan ilmu yang saya pelajari saya berkeinginan untuk mencari pengalaman kerja di Korea. Kebanyakan orang mengartikan “kerja” dengan masuk ke perusahaan besar atau pun berwirausaha. Namun bagi saya, tidak selalu begitu. Saya adalah orang yang independen dan menyukai apa pun yang saya suka. Oleh sebab itu saya memutuskan itu bekerja sebagai freelancer. Kebanyakan dari pekerjaan saya adalah mengajar bahasa Indonesia kepada orang korea menjadi guide, penerjemah. Pernah juga berpengalaman di sebuah kepanitian forum internasional. Bekerja sebagai seorang freelancer adakalanya pekerjaan banyak, namun adakalanya juga sama sekali tidak ada pekerjaan. Hal ini bagi saya tidak menjadi batu sandungan, justru menjadikan saya sebagai orang yang berpikir kreatif dan inovatif. Ya, itu semua untuk “esok”, masa depan saya.

Setelah selesai belajar, saya juga mengajar bahasa Indonesia dan bahasa Korea. Dengan harapan ilmu yang saya pelajari selama ini bisa bermanfaat untuk orang lain. Berikut adalah buku yang pernah saya terbitkan (1) Percakapan-Baca Bahasa Indonesia level Menengah (2)Kosa Kata Bahasa Indonesia- Korea (3)Kosa Kata Bahasa Korea- Bahasa Indonesia (4)Lagu-Lagu Bahasa Indoensia (5)Umur 20 di Korea, Fighting (6)Percakapan praktis Bahasa Indoensia-Korea.

안녕? 한국, 그리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송대 2009년에 입학했던 베트남 학생 당왕입니다.

갑자기 한국 ~ 한국선생님들과 한국친구들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한국말을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한국선생님께서 간단한 인사를 하셔도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한국말을 못 하고 한국음식을 잘 못 먹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없고..~ 그 때는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선생님들에게 많은 충고와 격려를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생활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주말에 만나서 한국 소주를 같이 마셔보고... 외국친구들과 즐기는 것도 유학 생활을 알차게 보내는 것 중 하나라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중국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보면 만날 날이 있지! 세상은 무척 좁거든...”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화살처럼 시간이 빠릅니다. 저는 베트남에 돌아온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에서 한국 포스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니 정말 힘들어요. 저는 동료들한테 자주 “잊지 못할 한국유학생활”에 대해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을 통해 한국선생님들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봉축구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좋은 추억을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당왕 (09학번) - 베트남

Xin chào. Tôi tên là Đặng Quang, cựu học sinh Woosong.

Bỗng nhiên nhớ đến đất nước, thầy cô và những người bạn Hàn Quốc, nên xin được v vài dòng.

Những ngày đầu tiên đặt chân đến đất nước này, tôi không thể nói được tiếng Hàn dù c một chữ. Giao tiếp và chào hỏi giáo sư chỉ bằng cử chỉ và nụ cười gượng gạo. Không t nói được tiếng bản địa, thức ăn cũng không thể ăn được, văn hóa người Hàn lại cài không thể hiểu ... Những ngày tháng đó thật sự rất mệt mỏi, tôi chỉ muốn bỏ cuộc và qu về. Nhưng nhờ sự động viên và chỉ bảo của thầy cô, tôi đã quyết tâm chăm chỉ học hàn Cuối cùng tôi cũng có thể quen được với cuộc sống và lối sinh hoạt nơi đây. Cùng v những du học sinh thân thiết, chúng tôi đã có những chuyến du lịch khám phá đất nư và con người nơi đây. Vào những dịp cuối tuần, chúng tôi cùng nhau uống rượu truyề thống Soju và ca hát. Mọi khoảng cách về sắc tộc dường như không còn, chúng tôi n đến cùng từ một đất nước. Bây giờ, chúng tôi dù đã ra trường, trở về đất nước của mìn nhưng vẫn giữ liên lạc với nhau.

Chúng tôi luôn nghĩ rằng “Xa cách rồi cũng sẽ có ngày gặp lại, trái đất vốn dĩ hình tròn” Thấm thoát, tôi đã trở về Việt Nam được 1 năm rưỡi. Hiện tại, tôi may mắn được làm vi một công ty Hàn quốc, tôi luôn kể cho những đồng nghiệp Hàn Quốc của tôi nghe khoảng thời gian du học sinh không thể quên cùng với một lòng biết ơn con người H Quốc sâu sắc.

Thông qua tạp chí “안녕” tôi xin được gửi lời cảm ơn đến quý thầy cô trường đại h Woosong và những người bạn, người anh em mà tôi đã quen biết trên đất nước này. Cì ơn đã giúp đỡ và cho tôi những ấn tượng đẹp trong thời gian ở nơi đây. Xin gửi đến c bạn lời chúc sức khỏe và hạnh phúc.

우리 딸 크면 다시 한국에 갈게요!

나는 2014년 8월에 한국을 떠났다. 한국에서 생활은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외롭고 한국어를 조금만 알았다. 그래서 맨날 우송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2년 후에 한국말을 잘하게 되어 한국 여행을 했다. 한국 여행을 할 때 어디가든 지 편하고 사람도 너무 친절했다.

또 2년을 더 식사공부를 할 때도 중국친구들과 교수님들과 재미있는 일이 많았다. 수업시간에 대부분 학생이 중국 사람인데 라오스 사람은 나 혼자였다.

5개월 전 한국을 떠날 때, 나의 부인과 딸이 한국 여행을 하러 왔다. 한국의 3월은 우리나라보다 더 춥다. 한국에 온 첫 주에 부인하고 딸이 그냥 방에서만 있었다. 4월과 5월은 한국 날씨가 좋아서 우리는 남이섬부터 부산까지 여행했다. 3개월의 시간이 너무 짧지만 우리는 아주 행복했고 둘째 아기도 만들었다.

지금 우리는 라오스에 있으면서 한국 음악을 자주 듣는다. 우리 딸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 나는 지금 국립 대학교에서 경제수업을 가르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가끔 한국 교수님이나 봉사하러 오는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데, 이때 한국말로 이야기한다. 한국사람 옆에 가까이 있으면 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지금 한국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국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 특히 삼겹살을 우리 딸이 아주 좋아했다. 앞으로 우리 딸 이 크면 다시 한국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한국에 살 때 불편한 거 없고 진짜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한국 사람들, 기다려주세요. 진짜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한국..... 사랑해!

ລາວ ----- ທະວີໄຊ

ໃນເດືອນ8ປີ2014 ຂ້ອຍໄດ້ເດີນທາງກັບປະເທດລາວຫຼັງຈາກທີ່ໄດ້ສຳເລັດການສຶກສາໃນມະຫາໄລວຸຊ້ອງ.ການໃຊ້ຊີວິດໃນເກົາຫຼີຊ່ວງໄລຍະທຳອິດນັ້ນຂ້ອນຂ້າງລຳບາກແລະຮູ້ສຶກເຫງົາເພາະບໍ່ຮູ້ພາສາເກົາຫຼີດີປານໃດ.ເພາະສະນັ້ນທຸກໆມື້ຂ້ອຍຕ້ອງໄດ້ໄປຮຽນພາສາເກົາຫຼີຢູ່ທີ່ສູນພາສາເກົາຫຼີ.ຫຼັງຈາກ2ປີທີ່ຂ້ອຍເວົ້າພາສາເກົາຫຼີໄດ້ຫຼາຍແລ້ວຂ້ອຍກໍ່ເລີ່ມທີ່ຈະອອກທ່ອງທ່ຽວ.ຢູ່ເກົາຫຼີນັ້ນບໍ່ວ່າຈະໄປທ່ຽວໃສ່ກໍ່ສະດວກສະບາຍອີກທັງຜູ້ຄົນກໍ່ໃຈດີນຳ.

ໃນໄລຍະເວລາ2ປີສຸດທ້າຍໄດ້ເຂົ້າຮຽນໃນລະດັບປະລິນຍາໄທພ້ອມກັບອາຈານຄົນເກົາຫຼີແລະໝູ່ເພື່ອນນັກສຶກສາທີ່ເປັນຄົນຈີນທັງນັ້ນແຕ່ຄົນລາວມີແຕ່ຂ້ອຍຄົນດຽວແຕ່ບັນຍາກາດຢູ່ໃນທ້ອງຮຽນກໍ່ຖືວ່າມ່ວນຫຼາຍ.

ຜົນກ່ອນທີ່ຂ້ອຍຈະກັບລາວພັນລະຍາກັບລູກສາວຄົນໜຶ່ງຂອງຂ້ອຍໄດ້ມາຢາມແຕ່ວ່າໃນຕົ້ນເດືອນ3ຢູ່ເກົາຫຼີນັ້ນໜາວກວ່າຢູ່ປະເທດລາວ.ສະນັ້ນໃນອາທິດທຳອິດພັນລະຍາແລະລູກສາວຂອງຂ້ອຍຈຶ່ງອາໄສຢູ່ແຕ່ໃນທ້ອງ ຈີນເຂົ້າມາເດືອນ4ແລະເດືອນ5ຫຼັງຈາກທີ່ອາກາດດີຂຶ້ນແລ້ວພວກເຮົາຈຶ່ງອອກໄປທ່ອງທ່ຽວແຕ່ເກາະນາມິຈິນໄປເຖິງພູຊານ.ພຽງເວລາ3ເດືອນມັນເປັນຊ່ວງເວລາທີ່ສິ້ນແຕ່ວ່າພວກເຮົາມີຄວາມສຸກຫຼາຍແລະມີໂອກາດໄດ້ເອົາລູກຄົນທີ່ສອງນຳກັນ.

ເຖິງແມ່ນວ່າດຽວນີ້ພວກເຮົາອາໄສຢູ່ທີ່ປະເທດລາວແຕ່ວ່າຍັງພັງເພງເກົາຫຼີຢູ່ເປັນປະຈຳ.ລູກສາວຂອງຂ້ອຍເວົ້າວ່າຢາກອາໄສຢູ່ທີ່ເກົາຫຼີ.ຂ້ອຍກໍ່ເຊັ່ນດຽວກັນ.ດຽວນີ້ຂ້ອຍກຳລັງສອນເສດຖະສາດພ້ອມກັບເຮັດການຄົ້ນຄ້ວາຢູ່ທີ່ມະຫາວິທະຍາໄລສຸພານຸວົງເຊິ່ງໃນບາງຄັ້ງກໍ່ມັກຈະມີອາຈານແລະນັກສຶກສາຄົນເກົາຫຼີທີ່ເຂົ້າມາເປັນອາສາສະມັກຊ່ວຍເຫຼືອຢູ່ໃນມະຫາວິທະຍາໄລເຮັດໃຫ້ຂ້ອຍໄດ້ມີໂອກາດໄອລົມກັບພວກເຂົາ.ເວລາທີ່ຢູ່ໃກ້ກັບພວກເຂົາເຮັດໃຫ້ຂ້ອຍຮູ້ສຶກຄືຢູ່ກັບເກົາຫຼີ.ກັບຈາກເກົາຫຼີບໍ່ທັນເທົ່າໃດກໍ່ເຮັດໃຫ້ຂ້ອຍຮູ້ສຶກຢາກກິນອາຫານເກົາຫຼີອີກຄັ້ງໂດຍສະເພາະສາມຄຸງບຊ້ຽນນັ້ນເປັນອາຫານມັກຂອງລູກສາວຂອງຂ້ອຍ.ເອົາໄວ້ຖ້າໃຫ້ລູກສາວໃຫຍ່ແລ້ວພວກເຮົາສັນຍາວ່າຈະກັບມາທ່ຽວເກົາຫຼີອີກຄັ້ງ.

ຊ່ວງໄລຍະເວລາທີ່ອາໄສຢູ່ເກົາຫຼີນັ້ນບໍ່ຄ່ອຍມີຫຍັງທີ່ລຳບາກເຮັດໃຫ້ຂ້ອຍຢາກອາໄສຢູ່ເກົາຫຼີ.ລໍຖ້າພວກເຮົາແຕ່ດີ ພວກເຮົາສັນຍາວ່າຈະກັບໄປອີກຄັ້ງ.

ຮັກເດີ.....! ເກົາຫຼີ



>> 타비사이 - 라오스

essay

한국에서의 일상

학교 축제! 한국 가수들을 직접 보다! 校庆! 与韩国明星面对面!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한류 때문에 매일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봤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은 피부가 다 좋다. 왜 그럴까?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다. 한국을 아주 좋아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한국에 왔다.

앞으로 한국에서 4년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재미있고 유익하게 지낼 것이다. 주말마다 한국 문화를 알도록 한국 음식을 먹는 다거나 여기저기 구경하러 간다거나 한국 친구를 만들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4년 중에 한국가수나 배우들을 꼭 누구든 만날 거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과연 학교 60주년 축제일이 되어서, 학교에서 가수들을 많이 초청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정말 기뻐서 죽을 뻔했다.

A pink, 서인국, 아이유, VOS, 스위소로우, 제국의 아이들, 김장훈, 허각 등이 초대되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아이유이다. 아이유가 나타날 때 축제 현장은 미친 것 같았다. 남자와 여자들이 다 큰 소리로 아이유 이름을 불렀다. 아이유는 진짜 예뻐뿐만 아니라 소리도 달콤했다. 아이유를 보고서는 잠이 안 왔다. 우리 학교 축제는 정말 멋있고 따스한 기억 속에 넣어 있다.

中学开始, 受韩流的影响, 我几乎每天都要听韩语歌, 看韩国电视剧。韩剧里的演员们皮肤都特别好, 为什么呢? 我非常好奇, 所以从那个时候我就开始关心韩国了。因为很喜欢韩国, 所以高中一毕业就来了韩国。

我将在韩国度过四年, 一定要过的有意义, 过的精彩。为了了解韩国文化, 每周周末我都会出门逛逛, 多吃韩国的食物, 多和韩国朋友见面。当然最让我激动的是, 我觉得在韩国四年内一定可以见到韩国明星。果然2014年9月底, 学校于校庆期间邀请了很多歌手来庆祝。当时听到这个消息后, 真的是开心极了, 我便于一个月前就开始了期待。

终于这一天来了, 下午一下课, 我就去晚会现场占位置。等了大约三个小时, 节目开始了, 那时的我非常的激动。APink、徐仁国、IU、VOS、Sweet Sorrow、帝国的孩子们、金长勋、许阁..... 每个节目都很棒! 但是印象最深刻的是IU她一出来, 现场都疯了似的。不管男生还是女生, 都叫着她的名字, 不仅人漂亮而且唱歌也特别好甜。因为太喜欢아이유看到她之后, 激动的那一整个晚上我都没有睡着。如果每天都有校庆的话就好了。



》 국제경영학부 3학년 반걸

Walk Together 结伴同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재미있는 활동에 참가한 적이 있다. 바로 다문화 가정과 유학생이 함께 하는 “Walk Together”라는 행사이다.

점심을 먹은 후 버스를 타고 행사 장소인 엑스포시민광장에 도착했다. 우선 친구들과 나는 참가 등록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곧 공연이 시작되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 문화와 장기를 뽐내는 공연은 기대보다 매우 재미있었다. 공연을 한 팀 모두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지만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동작을 보여 준 베트남 팀의 춤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동작을 할 수 있는지 친구들과 나는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땔 수 없었다.

공연이 끝난 후 행사장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행사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텐트였다. 친구들과 나는 텐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어떤 곳을 들어갈까 고민을 하다 사람이 적당히 있는 곳에 가 보기로 했다.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바디-페인팅(Body-Painting)을 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도안이 준비되어 있었고 마음에 드는 도안을 골라 원하는 신체 부위에 직접 그리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그림에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쉽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곧 행사가 시작되니 자리에 앉아 달라는 방송이 나왔다.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가 오후 3시쯤부터 걷기를 시작했다. 걷기 행사 중에는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활동을 할 때마다 도장을 받고 모든 도장을 다 받으면 경품 추첨에 참가할 수 있었다. 먼저 ‘희망메시지’라는 곳에 갔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희망을 종이에 써서 간판에 붙이는 활동인데 무슨 희망을 썼는지는 비밀이다. 친구들과 도장을 받고 더 빨리 도장을 받기 위해 서두르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시간이 점점 흐르고 한국 사람에게 길을 물어볼 자신은 없고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정말 다행히 다른 중국 유학생을 만나 길을 찾았고 ‘포토존(photo-zone)’에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사진을 찍었다. 공원에 가서는 일본어를 배우기도 했는데 내 일본어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친구들은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다. 그 외에도 파키스탄과 필리핀 문화 배우기, 베트남어 배우기 등 재미있는 다양한 행사에 참가했다. 세계의 문화가 얼마나 다채로운지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행사 마지막에 진행한 경품 추첨에서 비록 상품을 받지 못했지만 아무런 유감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날의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몇 개의 기념품과 사진만 남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한 그날의 추억은 오래오래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到韩国虽然没多久, 但是我参加了一次很有趣的活动, 活动的名字叫作大文化家庭和留学生一起Walk Together。

中午吃完饭后就坐车去了活动地点--世博市民广场。我和朋友们到达后就立马报名参加活动。刚坐到位子上演就开始了,从不同国家来的人们各自展示了自己国家的传统文化和特色绝技。演出比我期待的更加有趣。虽然所有的表演都很精彩, 也都获得了热烈的掌声, 但是对于我来说印象最深刻的节目是越南队的舞蹈表演。舞蹈动作既神秘又美妙, 怎么能够把舞蹈动作表演得如此美妙, 以至于我的视线一刻都未曾从舞台上移开。

演出结束后, 我们就在活动现场到处逛了起来。现场最吸引人们眼球的要数那些数不尽的帐篷了, 朋友们和我很好奇帐篷内的活动, 于是我们选了一个还不算拥挤的帐篷。帐篷里面的人都在做彩绘, 里面有丰富多彩的图案供人挑选, 大家各自选好自己喜欢的图案, 然后画在身上。由于我们几个人当中没有一个擅长画画的, 我们最终选择了放弃。

和朋友们吃着饭聊着天, 突然听到广播播送活动即将开始, 要求大家尽快就坐的通知, 于是大家都重新回到座位上。下午三点, 竞走活动正式开始。竞走过程中还准备了各式的活动, 竞走过程中每参加一项活动就可以得到一枚图章。集齐所有图章就能在活动最后参加抽奖活动。我们最先来到了一个名为愿望信息的地方。在这个地方先把自己的愿望写在一张纸上, 然后贴在白板上。至于我写了什么样的愿望那就是个秘密啦! 得到图章后, 为了更快的获得下一枚图章, 便匆忙地往前赶, 结果却不幸地迷了路。我们没有勇气向韩国人问路, 只能在那急得直跺脚, 时间就那样悄悄地流走了。幸运的是, 在途中我们遇到了其他中国留学生。在他们的帮助下我们找到了“照片地带”, 并和朋友们一起合影留念。我们在公园里学习了日语, 由于我的日语发音太奇怪, 逗得朋友们捧腹大笑。除了那些活动外还参加了巴基斯坦及菲律宾文化、越南语等各种各样有意思的学习活动。

在活动最后抽奖的时候, 虽然错过当选, 但是我没有任何遗憾。因为那天的经历对于我来说是用钱换不到的万分难得宝贵经历。仅留下了几个小小的纪念品和照片的那天, 对于我和朋友们来说却是留下了深刻记忆的完美的一天。



》 국제경영학부 3학년 오섬섬

유학생들 중에서 느낀 한국예절

从留学生活中感受到的韩国礼仪

2년 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8월 한국에 왔고 짧은 시간이지만 벌써 많은 문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예절입니다.

첫째, 언어예절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자기와 청자와의 관계,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한 경어법을 사용합니다.

둘째, 인사예절입니다. 얼마 전에 본 한 장면은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모자를 쓴 학생이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뒷사람을 본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이 빠르게 모자를 벗고 “안녕하세요?”라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사람의 뒷모습을 따라 가더니 천천히 모자를 다시 썼습니다.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셋째, 식사에절입니다. 식탁에서는 윗사람을 상석에 앉게 하며 먼저 수저를 들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먹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안 되고 윗사람이 식사하는 도중에는 먼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예절입니다. 제가 느끼는 생활예절은 정말 다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다가 어른을 만나면 담배를 꺼 버립니다. 그리고 길을 건널 때 운전자는 다 차를 세우고 행인 먼저 가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너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벌써 한국의 좋은 생활예절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유학이 책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를 배움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从两年前开始学习韩语以来，我接触到了很多韩国文化。今年八月开始到韩国学习，虽然到现在时间不长，但是我已经真切地感受到了很多韩国文化。其中，给我感受最深刻的就是韩国礼仪。

第一，语言礼仪。同他人谈话的时候，根据自己和听者的关系，谈话的时间和场所的不同而使用适当的敬语。

第二，问候礼仪。问候需根据时间、场所、人物的不同而变化。见到长辈要主动问好，问好的时候要鞠躬而且手不能放在包里。不久前看到的一幕场景令我至今很难忘。一位背着书包戴着帽子的学生在十字路口等红绿灯，这时迎面走来一位长辈，学生立即摘下帽子鞠躬问好，目送长辈离开后才再次戴上帽子，当时我真的很惊讶。

第三，餐桌礼仪。餐桌上，要请长辈坐上席，长辈先动勺筷晚辈随其之后开始用餐。另外，吃饭的时候不能发出声音，也不能在长辈吃饭的时候离开餐桌。

最后一点是生活礼仪。我感受到的生活礼仪更是多种多样。比如，韩国人绝不会在公共场所吸烟，即使是正在吸烟，见到长辈也会立刻把烟灭掉。过马路的时候，司机机会刹车让行人先过，而在中国因为是司机先行，行人后行，所以最初遇到这样的情况有些尴尬。但是现在已经适应了。

我认为我的留学生活不仅是要学习书本知识，更要通过从生活中感受到的各种文化来拓宽视野、增长见识。



>> 국제경영학부 3학년 소엽민

나의 한국 친구들

我的韩国朋友们

2014년 8월 나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심장이 두근두근 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한국 생활에 적응을 잘 하게 되었다. 한국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귀요미 한국 친구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왔지만 한국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집중 한국어 시간에 ‘말하기 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 활동을 통해 나는 베스트프렌드를 두 명이나 만들었다.

첫 번째 친구는 ‘윤다솔’이라고 한다. 발음이 ‘다송 치킨’ 하고 비슷해서 우리들은 다솔이보다 다송이라고 많이 부른다. 다송이는 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에 혼자 살아서 자주 놀러갔다. 다송이는 중국어를 정말 잘해서 의사소통이 정말 잘 된다. 한국에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과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준다. 그래서 다송이는 제2의 한국어 선생님이기도 하다.

두 번째 나의 친구는 '이희형'이다. 이름이 어려워 몇 번 이름을 부르다가 이제는 이름 부르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오빠'라고 부른다. 오빠는 노래 부르는 것을 아주 좋아해서 지난주에는 노래방도 같이 다녀왔다. 가수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 오빠를 보고 반할 뻔했다.

이렇게 좋은 한국 친구들이 있어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즐겁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들을 만난 후 그런 걱정이 깨끗이 사라졌다.

나의 베스트프렌드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 친하게 잘 지내자.

2014年8月我为了学习韩语登上了韩国行的飞机，心情万分激动。来韩国生活了之后发现，现实中的韩国要比我想象中地容易适应。现在我可以自己一个人去首尔，没有别人的帮助自己也可以独立完成很多事。不过能如此适应韩国生活也多亏了我可爱的韩国朋友们。

虽然来韩国与韩国朋友们的交往没有想象中那么容易，但是学校开设了集中韩国语“口语交流”的课程。这个活动里面，能见到学习中文的韩国学生，我结识了两个最好的朋友，从现在开始我要向大家炫耀我这两个朋友啦。

我的第一个朋友叫尹多率。他名字的发音因为和다송 치킨差不多，所以我们经常叫她다송。다송住在学校附近的单人人间，我经常去他家做客，다송的中文真的很好，在和我沟通方面完全没问题。我在韩国生活遇到的不能理解的问题和上课遇到不懂的他都会亲切的跟我讲解，所以他也可以算是我第二个韩语老师了。

第二个朋友叫李熙嫻。他的名字发音很难所以我得叫几次才能叫的准，所以现在我喊他哥哥。哥哥很喜欢唱歌所以上周我们一起去了KTV。啊-差点被唱歌唱得像歌手的哥哥迷住。

有这么好的韩国朋友们，我在韩国的生活真的很开心。来韩国之前我还有“我能很好的适应韩国的生活么”类似的担心，但是结交了如此多的韩国朋友，现在这类担心彻底消失了，我相信我们会是一辈子最好的朋友。



>> 자산관리학과 3학년 유하결

은행동에서의 첫 느낌 银杏洞的初印象

저는 이번 가을에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행해 본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는 자주 구경을 다닙니다.

저는 은행동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는데 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은행동은 대전 중구에 있습니다.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는 아주 재미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우송대학교까지 가까워서 택시나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게가 있어서 저는 친구들과 같이 물건을 사러 갑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으능정이 거리에는 옷가게와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문화와 유행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옷 한 벌을 샀습니다. 제가 산 옷은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옷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또한 은행동에는 빵집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좋은데, 그곳은 인기가 정말 많고 수많은 종류의 빵을 시식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 소보로'와 '부추빵'은 추천할 만합니다. 정말 맛있어서 다시 한 번 거기 빵을 먹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은행동에 또 가고 싶습니다.



九月,我终于踏上了初访韩国之旅。基本上没去过韩国其他地方玩儿,但我的足迹已经踏遍了所居住的大田。我去过一次银杏洞,对那印象深刻。银杏洞在大田的中部。银杏洞的青年文化街是非常有意思的地方。那里离又松大学很近,所以去那里我们通常选择坐出租或者地铁。那里有各类店铺,所以我和朋友们一起去那儿买东西。人真的很多,那里不仅有时装店,还有美食和娱乐场所,是一条可以同时感受文化和时尚的街道。我买了一套衣服,那件衣服不仅质量好而且设计也是最近流行的风格,所以我非常喜欢那件衣服。另外银杏洞有许多面包店,我最喜欢的店名叫“圣心堂”。

那家店人气真旺,品质如店名,在那里可以免费品尝到许多美味的面包。推荐那家招牌面包油炸包和韭菜包,真的非常好吃。好想再次品尝那家的美味面包。下次还会再去银杏洞。



》 컴퓨터정보학과 3학년 번신

전주 1박2일 문화체험 全州两天一夜文化体验

학교에서 우리에게 한국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1박2일 전주 여행 가는 기회를 주었다. 처음 가는 한국문화 체험 여행인데다가 전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매우 흥분됐다 출발하기 전날 밤에 인터넷으로 전주를 조사했는데, 전주는 한국 중서부의 평원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의 일곱 째 대도시이고, 900동이나 되는 대규모의 한옥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침 열 시쯤에 선생님을 따라 학교버스를 타고 전주를 향해 출발했다. 전주에 도착하니 드라마에서 봤던 한옥마을이 보였다. 한옥마다 울긋불긋한 초롱이 달려 있었다. 한옥에 거주하면 어떤 느낌일까 싶었는데 정말로 한옥에서 하루를 지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한옥은 방과 방을 잇는 공간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고 중간에 정원이 있었다. 정원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 햇빛 아래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 나는 처음 한옥에 거주하는 것이라 유달리 감동스러웠다. 흥분된 기분으로 1박2일의 전주 여행을 기대했다.

한옥에서 휴식을 취한 후에 전주의 전통문화박물관에 가서 한국의 예의를 배우고 한복을 체험했다. 아주 친절한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우리는 각자 어울리는 한복을 선택하고 단정하게 마루에 앉아 설명을 듣고 할머니를 따라서 공수에 의를 했다. 이 예법은 아랫사람이윗사람들에게 인사를 올리는 예절이라고 했다.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니 정말 재미있었고 한국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다. 한복을 체험한 후에는 옆에 있는 부엌에 가서 전주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인 전주비빔밥을 만들었는데 한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밤에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나눴다. 집이 그리워서인지 아니면 교수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받아서인지 몰래 우는 친구들도 있었다. 낮에는 다들 즐겁게 놀았는데 밤이 되니 숨겨왔던 약한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부모님 곁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며 쌓였던 복잡한 심정들이 하나 둘씩 꺼내졌다.

어제보다 건디지 못할 오늘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는 못 피웠던 꽃이 오늘은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우리 모두 이 날의 눈물이 미래의 미소로 피어날 것이라 믿고 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처럼 시간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전주에서의 하루는 한국의 매력을 알려주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는 시간이었다.

学校为了让我们体验韩国文化,为我们准备了一次两天一夜的全州旅行的机会,或许是因为第一次在韩国游玩,或许是对全州的喜爱,我非常兴奋。出发前一晚,我在网上对全州简单地进行了了解。全州市位于韩国中西部平原地区,是韩国第七大城市,以900多栋韩屋群落而出名。

早上十点老师带我们坐校车向全州出发,到达全州后在以前电视剧里看到的韩屋村就立刻映入眼帘。韩屋前都挂着五彩灯笼,这我不禁对住进韩屋而感到好奇。最终我如愿以偿地住进了韩屋。韩屋整体是房间与房间相连围成四方形,中间空有个庭院。庭院里有颗漂亮的树,在阳光底下闪闪发光。因为第一次住进韩屋,我格外激动,同时也兴奋地幻想着两天一夜的全州之旅。

在韩屋里休息会后,去了全州传统文化博物馆。在那里学习韩国的礼仪文化和体验了韩服试穿活动,非常亲切的奶奶给我们上课。首先我们选择了适合自己的韩服,然后一边端正地坐在地板上听她给我们进行解说,一边跟着奶奶做拱手礼。这个礼法是晚辈给长辈行礼的方法,因为在韩国直接体验韩国文化,感觉是那么得真切。韩国总能在细节上体现国家特色,我想这也是他的魅力所在吧。

晚上教授们和学生们聚在一起,对留学生在韩国生活困难之处一起进行探讨。这时,有朋友或许是因为想家,又或者是因为韩国老师的关心,偷偷地哭了起来。每个人都有脆弱的地方,之前虽然笑着玩耍,但是当触碰到脆弱的内心时,积累的委屈,想念等等,就会在一瞬间全部爆发出来。但是请相信今天不会比昨天更难以忍受,因为昨日未曾开放的花朵在今天便可能美丽地绽放。以后我们会更好地适应韩国的生活,当下的眼泪便会成为未来的微笑,就像时间是良药一样,时间能愈合我们的伤口,我们应该为以后的生活而更加努力。



》 정보대 범아단

한국드라마를 따라서 서울을 여행하다 寻找韩剧的首尔之旅

올해 5월 연휴에 며칠 동안 서울에서 놀았다. 서울은 큰 특징이 있다. 바로 드라마의 촬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많은 한국드라마를 봐서 그런 곳에 가면 친근한 느낌이 있다.

먼저 광화문광장은 아이리스와 시티헌터를 촬영한 장소이다. 거기에는 유명한 이순신장군과 세종대왕의 조각상이 있다. 세종대왕의 조각상 밑에는 한글도 조각되어 있다. 나는 한국어를 배워서 그런지 세종대왕에 대하여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세종대왕과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 내 운명은 어땠을까?

둘째 경복궁은 각종 시대극을 생각하게 한다. 나는 대장금을 봐서 좀 익숙했고, 같이 간 친구는 향원정을 보고 몹시 흥분했다. 해를 품은 달에서 나왔던 장소라고 했다. 수세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복궁에서 많은 역사변천과 함께 왕조가 바뀌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은 아마 드라마보다 더 멋진 것이다.

북촌한옥촌은 겨울연가와 이민호가 나오는 개인의 취향이라는 드라마를 모두 거기에서 촬영했다. 소박한 가옥과 좁은 골목, 기와 한 장, 처마 한 쪽, 다 이야기가 있는 사진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곳이 서울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한다.

남산 서울타워. 그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곳이다.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지이기 때문에 “도민준 씨”의 간판을 볼 수 있다. 옆에 사랑의 자물쇠들이 가득히 걸려있었다. 그곳은 정말 사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나도 저절로 행복했다.

많은 한국드라마를 보고 그곳을 찾아다니며 여행의 즐거움을 누렸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섰던 곳에 서니 나도 드라마에 몸을 맡긴 것 같다. 물론 한국의 볼 만한 곳이 TV에서 나온 곳보다 더 많은 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유학기간을 잘 이용해서 많은 여행을 할 것이다.

今年五月连休的时候我去首尔玩了几天。首尔有个特别大的特点，就是到处都能够找到韩剧中曾出现过的地方。我也看过很多韩剧，每到这些地方都会感觉很亲切。

第一个是光化门广场，城市猎人和IRIS都曾在这里取景。这里有非常有名的李舜臣将军和世宗大王的铜像。看着世宗大王的雕塑，雕塑下面刻着韩文的字符，也许是因为自己学习韩语的原因，看见世宗大王特别有感情，想想看如果没有世宗大王特别的亲切，连我的命运也会不一样呢！

接下来是景福宫，说起这里那就是各种古装剧了。我比较熟的就是大长今，同行的朋友则是看到香远亭非常激动，说那里曾在《拥抱太阳的月亮》里出现过。想想看繁华现代化的都市中央伫立着这样一个古老的宫殿，真是别有一番风味。拥有几百年历史的景福宫就在这里看尽历史变迁，朝代更迭，曾经在这个宫殿发生过的那些爱恨情仇怕是比电视剧里更加精彩。

北村韩屋村，经典韩剧冬季恋歌和李民浩的个人取向都在这里取景。这里真是个好拍照的好地方，古朴的老房子，窄窄的小巷子，一个屋檐，一片青瓦，都能变成一张有故事的照片。我在首尔感觉最美的地方就是这里。

南山首尔塔，是首尔的标志，说起这里马上会想到的，就是《来自星星的你》。边上挂满了爱情锁。这里真的是个很有恋爱气氛的地方，随处都能感受到慢慢的恋爱气息，真是美好。

就是因为看了很多韩剧，站在韩剧主角们曾经站过的地方，好像自己也置身于电视剧中一样。当然韩国值得一去的地方不仅仅是在电视剧中出现过的那些，还有许多等着我去发现，我一定要好好利用留学的这段时间，把韩国玩遍。



» 호텔관광학과 3학년 장배리

내 앞에 있는 아름다운 것 我眼前的美好

저는 한국에서 산 시간이 얼마 안 된 중국 유학생입니다. 타국에 온 순간 왠지 궁금하고 흥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촬영을 좋아하니 카메라를 이용해서 모든 아름다운 풍경과 좋은 기분을 기록하고 친구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2014년 9월 25일 오후에 선생님들과 우리들은 대전 주변 마을에 가서 한국 음식 만드는 방법을 참관하고 경험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순간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신기하고 그림 같은 풍경에 빠졌습니다. 오후 태양의 빛이 찬란한 9월의 가을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아래에서 눈부신 빛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볍고 부드러운 녹색이 계속하여 끊임없이 전체 언덕에 가득했습니다. 사실은 생활에서 아름다운 것이 여러 가지 다 있고, 우리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생활을 잘 하면 모든 사람의 예쁜 것을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따뜻한 것, 가벼운 것, 즐거운 것, 감동스러운 것을 발견할 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作为一名刚到韩国的中国留学生，对异国他乡有着莫名的好奇和激动。我是一名摄影爱好者，希望能发现些不一样风景，用我手中的镜头把这些感受记录下来并且展现出来，分享给读者更多的朋友们。2014年9月25日下午，老师们带领我们去大田周边的一个小村落，参观体验如何制作韩食。当我们到达目的地时，从大巴上下来，我就被眼前一片片绿油油的绿色震惊了-那绵延铺展、生机勃勃地绿色直接穿透我心。呆呆地，就坐在这儿，如醉如痴地享受起了眼前令人陶醉的美景。正是阳光明媚的下午，太阳的光芒灿烂迷人，阳光洒在那些即将要成熟的小麦上。那轻柔的绿色布满连延不断的整个山丘，在9月的秋天，那晴朗的蓝天映衬下，闪烁着耀眼的光芒。其实生活中，美其实无处不在。只要打开心灵、拥抱生活，每个人都会发现，美就在自己身边。感受着这些美好，我的内心有一种温暖、轻松、温柔、快乐、感动，嗯，真是幸福的体验。



» 게임멀티미디어학과 3학년 염홍의

남이섬 여행기 南怡岛之旅

남이섬은 사계절 언제 가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고 특히 가을에 풍경이 아름답다고 해서 친구들과 같이 꼭 한 번 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전에서 남이섬까지 길이 아득히 멀어서 아침 일찍 출발했다. 드디어 배를 타고 내려서 남이섬에 도착했다. 들어가는 순간 곳곳한 나무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길을 따라 가면서 양쪽에 있는 경치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다. 특히 가을이니깐 벌써 단풍잎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의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들으면서 그림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찍어 놓았다. 가을연가 촬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남이섬은 국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자연과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남이섬은 구경을 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가족들이나 연인하고 친구들과 함께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南怡岛是一座任何季节都适合游玩的小岛，每个季节都给人不同的感觉，具有特别的味道，特别是秋日的南怡岛，风景更是美不胜收。因此我和朋友们约定一定要去感受它的美。从大田出发到南怡岛路程虽然遥远，但也不能阻挡我的脚步，于是早早地出发了。终于和小伙伴来到南怡岛景区，排队乘船上了岛。一走进南怡岛，一棵棵笔直，高挺的树木映入眼帘，沿着小路缓缓前行，路两旁的景色让人赞叹，停下脚步驻足欣赏。尤其是正值秋季，枫树渐渐穿上了红衣裳，星星点点的红与黄叶相衬托，勾勒出了一副图画般的景色。微风拂过，听着树叶簌簌的响声，用相机记录下了这美好的瞬间。南怡岛因作为韩剧《冬季恋歌》的拍摄地而闻名，吸引了无数国内外的观光客前来游览。自然美景与文化氛围共存的南怡岛是一个值得一去的游览胜地。和家人、恋人或是朋友一道，一定会留下美好而弥足珍贵的回忆。



» 호텔관광경영학과 3학년 윤영설



짧지만 즐거운 유학생생활 短暂而美好的留学生活

제가 중국유학생으로 한국에 온 지 벌써 2개월이 됐습니다. 유학하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국생활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 실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신입생처럼 거북한 일도 발생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배달을 시킬 때 전화하기 전에 해야 할 말을 많이 연습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저씨, 치킨 하~~~~~안 마리고.....”

치킨 한 마리 주문하는데 5분이나 걸렸습니다. 다행히 아저씨는 끝까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지만 정말 창피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통 주말에 여행을 갑니다. 친구들과 같이 안면도와 전주, 서울에 가 봤습니다. 우리는 안면도에서 바다를 봤습니다. 바다를 처음 보기 때문에 푸른 바다와 파도가 너무 아름답고 시원해서 제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만났던 한국 친구를 만나려고 전주에도 갔습니다. 전주는 한국 전통이 살아 있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한국 전통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쇼핑을 위해서 서울에 가기도 했습니다. 서울 여자들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서울 어디서나 중국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쇼핑하려고 한국으로 여행 온 관광객들입니다. 앞으로 제가 서울에서 회사를 창립한다면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3년 동안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고 한국의 다른 곳에도 갈 수 있습니다. 남은 유학생생활이 정말 기대됩니다.

來韓國已經兩個月了，來韓國留學，我感到非常高興。在這兩個月的時間里，我一邊學習，同時也體驗著韓國的生活。

剛來韓國的時候，因為韓語不太好，所以很多事都不方便。我想很多新入生都跟我一樣，生活中時常会有一些很尷尬的事情發生。我記得第一次點外賣的時候，我在打電話之前，我把需要說的韓語練習了很多遍，但是打電話的時候，因為很緊張，很簡單的話我還是說不出來，用了很長的時間才說清楚……點一只炸雞用了整整五分鐘！真艱難！

在這裡學習當然很重要，但是我週末的時間都去旅行了。我和朋友一起去過安眠島，全州，首爾。這些地方都很有意思。我在安眠島看到了大海，因為是第一次看海，真的很開心，海的聲音也很好聽；在全州我是為了見以前在中國結識的韓國朋友去的，她的家人很熱情，在那里我品嚐到了正宗的韓國傳統食品，味道真的不錯：去首爾當然是為了購物。但是！首爾的女孩子真的很漂亮，而且到處都可以看到，所以我想再去一次。首爾的中國人也很多呢，大部分都是來購物的，所以我覺得我以後能在首爾開一家公司的話，肯定可以掙很多錢吧。哈哈！

我將在韓留學三年，所以會有很多機會去其他的地方，當然我也会努力地學韓語，交更多韓國朋友。非常期待接下來的留學生活。



》》뷰티디자인학과 2학년 안웅

에버랜드 爱宝乐园

저는 포리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유학을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살았는데 한국의 음식, 학교, 수업 등이 중국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에 관광지가 많아서 저는 모두 가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 놀이공원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놀이공원이 에버랜드하고 잠실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에버랜드에 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에버랜드까지 버스로 2시간쯤 걸렸습니다. 에버랜드는 넓고 놀이기구가 많았습니다. 놀이기구가 재미있어서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는 처음 갔지만 친구와 같이 가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에버랜드에 도착해서 구경했습니다. 친구와 같이 트램 타고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그리고 꽃이 핀 화원에 갔는데 정말 예뻐했습니다. 구경만 하고 사진을 안 찍었기 때문에 진짜 후회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1시간쯤 기다렸습니다. 조금 무서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중국사람도 만났습니다. 한국사람과 결혼하고 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쁘고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잘 했습니다. 진짜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같이 동물원에 갔습니다. 호랑이, 사자, 원숭이, 새, 북극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물들에게 간식을 주었습니다. 동물은 기분이 좋아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4시에 에버랜드에서 학교로 오는 버스를 타고 기숙사에 왔습니다. 조금 피곤했지만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我叫鲍磊，来自中国，为了学韩语来韩国留学。我在韩国生活了一个月了，与中国相比，韩国的饮食，学校，课程…太多的不一样。韩国的景点非常多，很多我都想去。

我喜欢游乐园。韩国有名的游乐园是爱宝乐园和乐天乐园，于是上周末我就和学校的朋友们一起去了爱宝乐园。因为天气好所以心情也很好，从学校到爱宝乐园乘巴士大约需要两个小时。爱宝乐园很大而且游乐设施很多。因为很有趣，所以有很多人去玩。我虽然是第一次去，但因为有朋友一起所以并不担心。上午到达爱宝乐园后大概观光了一下，然后和朋友一起坐了观光缆车和旋转木马，还去了开满鲜花的花园，甚是美丽。游览的时候却忘记拍照实在是很后悔。中午在享受后美味的午饭后搭乘了木质过山车。为了做过山车等了将近一个小时之久，虽然有些害怕但是非常有趣。在爱宝乐园遇见了一位中国朋友，她和韩国人结婚了并且有了两个孩子。小孩子很漂亮并且韩国语和中文都说的非常好，真是可爱极了。之后还和朋友一起去了动物园。有很多可爱的动物，老虎，狮子，猴子，鸟，北极熊…人们会给动物喂零食，动物们看起来心情也很好。可是美好的时间总是过得特别快，一转眼就到了回学校的时间。

4点从爱宝乐园回乘坐巴士回学校了，虽然有一点累但是想到那么有意思，有机会的话我还想再去一次。



》》호텔관광경영학과 3학년 포리





▲ 북경에 있는 천안문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여행을 가세요

If you need changes, go on a trip

늘 똑같은 사람들과 만나고 늘 똑같은 생활을 한다고요?
새롭게 변하고 싶은데 계기가 없다고요?
그럼 여행을 가보세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해 왔지만 한국에 온 지도 2년쯤 되니까 활력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일이 없을까 찾고 있었는데 디베이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마침내 디베이트 대회에서 이겨서 상으로 중국과 베트남에 여행을 갔습니다.

이 여행이 제게 새로운 에너지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이전 지쳐있는 많은 것들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북경의 추운 겨울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유명한 관광 장소이자 역사적 장소인 천안문 광장, 만리장성과 베이징 대학교 같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또한 아주 빨리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나라 중 하나인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여행과 정반대로 연중 가장 높은 온도일 때인 여름 중순에 방문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중국과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비교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여행 뒤로 저는 다시 남은 많은 시간을 더 활력 있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도전을 피하지 말고 도전하고 새로운 곳을 여행하면서 일상에서 탈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솔브릿지 3학년 쇼후르흐

Are you always meeting same people and having same everyday life? You want to change something, but no chances to. Then, take a trip to somewhere.

Although I have been living in a own hard life, it seems like my vitality has been disappeared when it is now 2 years passed since I came to Korea. So I have been looking for a special thing to do and found a contest to participate in. I tried even harder after knowing that I can go abroad if I win. Finally, I won a prize to visit to Vietnam and China.

This trip inspired me to have a new energy. By being in a new culture, it seemed like it created a new energy to many things that I was exhausted in. It was winter when I went to China.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experienced a cold weather of Beijing. I visited famous tourist and historical places such as Tiananmen Square, the Great Wall and Beijing University. I also visited one of the fast growing Asian countries, Vietnam. Contrary to my trip to China, I visited Vietnam when it was the highest temperature of the year. It was interesting to find and compare cultu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fter these trips, I can spend the remaining time in Korea more vigorously. I suggest everyone to not avoid challenges, travel to new places and escape from everyday life.

K-POP 그리고 한국어 K-POP与韩国语

저는 한국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요즘 K-POP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행하는 한국 가요를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I don't care eh eh eh eh eh . I don't care eh eh eh eh eh", "Give it to me oh babe Give it to me." 영어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이 영어가사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투웨니원과 씨스타의 노래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요즘 나오는 한국 노래 가사에는 이렇게 영어가 많습니다. "Bo Peep Bo Peep Bo Peep Ah!" 여러분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티아라의 곡인데요. 그런데 이 노래 가사 뜻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안 것인데 한국말로 하면 "까꿍까꿍", "잼잼" 하며 아이들이 노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로 좀 더 예쁘게 표현할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가수 '이적'을 알게 되었고 또 "다행이다"라는 노래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 줘서." 정말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영어 가사가 아닌 한국어로만 표현한 가사.

제가 한국 노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으로 한국 노래를 통해 예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적인 정서와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진정한 매력을 알고 싶습니다. K-POP을 좋아하지만 한글의 묘미를 더 사랑하는 그런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我韩语说的不是很好但是韩国歌曲有几首是能够流利地唱出来, 所以我对韩国歌曲很感兴趣. 最近因为K-pop的原因, 全世界有很多人对韩国产生兴趣, 这也是我想要学习韩语很重要的理由之一. 但是最近听着韩国流行的歌曲有几点感到了疑惑.

"I don't care eh eh eh eh eh . I don't care eh eh eh eh eh", "Give it to me oh babe Give it to me." 这些不是英文歌曲的歌词. 这些英语歌词是不仅在韩国甚至在全世界都很出名的2NE1和sistar的歌中出现的歌词. 最近出来的韩国歌曲歌词中有很多这样的英语歌词. "Bo Peep Bo Peep Bo Peep Ah!" 大家这个歌词经常听到吧! 这是T-ara的歌曲. 但是大家知道这个歌词的含义吗? 我不久之前也是不知道韩语说起来 "까꿍까꿍", "잼잼" 是表现孩子们玩乐的时候的意思. 但是用韩语表达时没有更加美丽的词汇表现了吗?

"遇到了你, 得以轻抚你的发梢", 通过综艺节目 "无限挑战" 我们认识了歌手李笛还有叫做 "幸好有你" 的歌曲, "真是万幸, 认识了你给了我这般美丽的世界." 这难道不是那种能使心情激动的歌曲吗? 不使用英文只用韩文表现的歌词.

我对韩国歌曲并不是有很多的了解, 然而学习韩语的人们通过韩国歌曲学习美丽的韩语, 同时学习韩语能体会到韩国式的情与其他国家语言不同, 能够感受到它真实的魅力. 希望能成为不仅喜欢K-pop更能深刻体会韩语学习乐趣的那种学生.



》국제경영학부 3학년 포령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实现梦想的方法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오늘부터 효율적인 삶을 살 거야”, 또는 “내일부터 꼭 열심히 공부할 거야”라고 한 번 쯤은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이런 열정은 쉽게 사라져 버린다. 결국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봤다.

첫째, 계획의 순서와 시간을 정해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조금 여유를 갖고 해도 되는 것을 정하고, 언제까지 달성을 해야겠다는 기간을 정한다면 조금 더 쉽게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좋은 습관을 가져라.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옮겨라.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좁은 도랑도 건널 수 없다. 실수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我们不止一次的对自己说：“从今天开始要更有效率的生活！”或是“从明天开始我一定要更努力地学习。”但是，这种被称为“决心三日”的热情很快就会消失。结果我们之前定下的目标却并没有达成。大多数的人给自己制定了目标，却不知道怎样去实践。所以，为了达成之前制定好的目标，怎样做会更好，跟着下面几点一起好好地规划。

第一，制定好计划的顺序和时间。
如果确定事情的先后顺序并且定下到哪天一定要达成的期限的话，就能更容易的接近目标。

第二，有着良好的习惯。
众所周知，习惯一旦养成，很难改变。正因如此，为了能有良好习惯而努力的话就一定能够成功。

最后，转化为实际行动。
如果不迈开步伐，即使很窄的小溪也跨不过去，如果只是空有目标和想象而不去努力的话，不管境遇再好也没有一点作用。即使没有过人的才华，不断努力的人也一定会取得成功的。并且你要知道比失误更可怕的事是你什么都不去做。因为这些事情并不是一天就能完成的，所以我认为只有经过长期的努力才能将梦想转化为现实。



》뷰티디자인과 3학년 단범



향수병 乡愁病

엄마가 사 준 향수를 다 사용해 버렸다.
향수병만 남았다
그래,
향수병만 남았다.

媽媽給我買的香水已經見底。
只剩下一個瓶子。
是啊。
我亦猶如處於瓶頸之中。



》운송물류학과 2학년 육지초

가을 秋天

으슬으슬한 바람이 분다
쓸쓸한 가을이 살며시 온다
왠지 슬픈 마음이 생긴다
우울한 기분이 내게 밀려온다

노랑노랑 낙엽이 떨어진다
아름다운 나비처럼 날아온다
왠지 눈에 눈물이 고인다
강한 외로움이 나한테 몰려온다

붉은 노을이 하늘 끝에 내려간다
찬란한 달빛이 얼굴에 비춰 준다
왠지 멀리 있는 고향이 간절히 그리다
누군가의 포근한 품속에 안기고 싶다

고요한 긴 밤이 살짝살짝 떠나간다
미약한 햇살이 창에다가 들어간다
왠지 답답한 마음이 차분해진다
진지한 희망이 다시 생긴 것 같다

涼颼颼的秋风吹来了
凄凉的秋天悄然而至
莫名地滋生起伤感
忧郁的心情向我袭来

枯黄枯黄的落叶掉落下来
似美丽的蝴蝶向我飞来
莫名眼眶里噙满了泪花
强烈的孤独感向我涌来

火红的晚霞坠落天际
灿烂的月光映照我脸庞
莫名地迫切思念远方的故乡
想要拥进某个温馨的怀抱

寂静的长夜悄无声息地离去
微弱的阳光照射进窗沿
莫名地郁闷的心又再次平静了下来
真挚的希望再次燃起



》국제경영학부 3학년 장흥



언어연수 语言研修

-신입생 인터뷰-

언어연수를 통해 느낀 첫 유학생 생활 경험
언어연수를 마치며 느낀 생생한 후기
언어연수의 이모저모.



Interview

날씨가 조금은 쌀쌀했지만 가을이 왔음을 느낄 수 있었던 어느 날 언어연수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과 신입생들이 학교 교정에 모였다. 선생님과 신입생들은 언어연수 수업을 들으며 보낸 첫 한국 생활에 대해 진솔한 답소의 시간을 가졌다.

虽然天气稍微转冷，但我已经感受到秋天已经到来了。有一天下课后，老师和新生们在校园来了个小小的约会。老师和新入生们一边喝着热腾腾的咖啡欣赏着韩国秋天的红叶，一边聊着在韩语教育院上语言课上所学的‘第一次韩国生活’。时间就这样不知不觉的过去了。

[선생님] : 한국에서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한 소감 좀 얘기 해 주세요. 많이 힘들기도 하고 긴장된 생활이었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일도 많았지요?
跟我说说你们最初留学生活的感想吧。虽然很累、很紧张，但是也很有意思吧？

[조효엽] : 사실 혼자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좀 긴장됐어요. 환경도 낯설고 언어도 서툴러서요. 하지만 와 보니까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친구들도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이제는 친구도 많이 사귀고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니 아주 즐거워요.
其实独自在国外生活一开始会有些紧张。虽然环境和语言都非常的陌生，来了之后发现老师们都很亲切，朋友们也很热情。现在也结交了许多的朋友，也渐渐熟悉了韩国的生活，所以现在的韩国生活很开心。

[주옥금] :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치킨 맛에 반했어요. 갈비탕도 너무 맛있고요. 음식 덕분에 유학 생활이 더 즐거웠어요.^^ 또 한국의 거리는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我来了韩国之后就爱上了炸鸡，而且排骨汤也非常的好吃。幸亏韩餐比较和我胃口，韩国生活也变得更有趣了。还有我觉得韩国的街道非常有特点。

[선생님] : 아직 한국 생활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것이나 좀 아쉬웠던 것들이 있어요?
虽然在韩国生活还没有多长时间，那么你来韩国之后有什么感到非常好的或者非常遗憾的事情吗？



[장신희] : 저는 경치가 정말 아름답고 공기도 좋아서 아주 좋았어요. 또 한국어 수업도 생각보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매일 즐겁게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은 과일의 종류가 좀 적고, 비싸서 가끔 중국이 그리기도 했어요.
我呢.特别喜欢韩国的风景和空气。还有韩语课也比想象中的有意思。每天都过的非常开心。但是韩国水果的种类非常少，而且很贵。偶尔会想念中国的水果。

[유탉울] : 저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같이 시장도 보고 음식도 만들어서 나누어 먹은 일이 제일 좋았어요.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我喜欢和前辈、朋友一起去市场买菜，然后自己回来做着吃。我觉得这样可以制造好多回忆。

[선생님] : 마지막으로 우송한국어교육원에 바라는 점이나 이번 학기를 마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最后对韩语教育院有没有什么意见或建议呢？或者有没有什么在这学期想说的话呢？

[왕 비] : 언어연수 첫 학기는 정말 즐거웠어요.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 같이 불고기도 먹으러 가고요. 활동이 많아서 정말 좋았어요.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없고 다음 학기도 지금처럼 즐거우면 좋겠어요.
第一学期的语言课真的非常有趣。和老师同学们又去电影院看电影，又去烤肉店吃烤肉，真的非常开心。还有其他各种丰富有趣的活动，真希望下学期也能这样。

[장신희] : 한 학기가 정말 눈 깜짝 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다음 학기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TOPIK 시험도 응시해보고 싶어요.
一学期真的一眨眼就过去了。下学期要更努力的学习，充分准备之后去考TOPIK。



인터뷰 : 하재선, 선생님, 조효엽, 주옥금, 장신희, 유탉울, 왕비

언어연수 - 한국에서의 일상

언어연수 가을학기를 마치며... 语言研修之秋季学期结束

나는 올 여름 취직을 위해 연수 반을 신청했다. 한국어를 빨리 배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왜냐하면 비자가 내년 2월까지인데 한국 말이 아직도 서툴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내 생각은 언어연수 수업을 듣고 완전히 달라졌다.

가장 주목했던 것이 친절한 우리 반 선생님이었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반 친구들을 책임지고 많이 도와주셨다. 또 수업 중에 우리가 말을 잘 듣지 않았을 때나 피곤해서 졸 때, 잡담을 할 때도 선생님은 한 번도 화 내지 않으시고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셨다. 특히 취직을 위해서 쓴 자기소개서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선생님께서 바쁘신데도 늦은 시간까지 봐 주셨다.

아마 다른 친구들도 여러 걱정이 있을 것이다. 그 친구들에게 말해 주고 싶다.

“무엇이든 서두르지 마라. 기회는 당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파이팅!

为了求职，我今年夏天申请了语言研修。一开始，我对研修班没报太大的期待，只想把韩语赶紧学好，因为我的签证明年2月份到期，但是对韩语还是很生疏，所以压力很大。可是上课之后我发现跟我想的很不一样。最值得一提的是我们班亲切的老师们。老师们对我们很负责任，如果我没有来这个班，可能这样好的老师就见不到了。上课期间，有问题的话，无论什么时候都很高兴的为我们解答，而且有的时候我们不认真听了，累了在睡觉的时候或者相互闲谈的时候，老师从来没生过气，还对我们好言相待，让我们很感动。特别是我为了求职写的自我介绍书，麻烦老师帮我修改，虽然老师很忙，还是帮我改到很晚，让我感动的都不知道说什么。和班上同学一起学习的日子也很难忘。一起学习，一起购物，不好的事情发生的时候一起分享，互相帮助。在这这样好的氛围里学习，我没有了压力，每天心情都很轻松，生活的很幸福。可能你们也有各样的担心吧？我想送你们一句话。凡事莫急，机会总是在不经意间出现！加油！



>> 언어연수 중급 2반 양진

에버랜드 문화체험 爱宝乐园文化体验

-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곳 환상적인 곳 에버랜드로 출발~

2014년 9월 27일 우송대학교 언어연수 학생 39명이 에버랜드로 문화체험을 다녀왔다. 완연한 한국의 가을 날씨를 자랑하듯 아주 쾌청하고 맑은 날씨 덕분에 학생들은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더욱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선생님의 공지사항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놀이기구로 달려갈 정도였다. 대전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서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오늘 하루 얼마나 재밌게 보냈는지 친구들과 수다를 떠느라 도착할 때까지도 깔깔 웃음소리가 버스를 떠나지 않을 정도였다.



2014년 9월 27日, 又松大学语学研修的学生们共39名一起去了爱宝乐园, 开始了文化探访之旅。秋色宛然, 万里无云, 学生们一起去了幻想的国度--爱宝乐园, 在那里度过了快乐且有意义的一天。爱宝乐园, 大家都期盼了好久, 到了之后还没得挺清楚老师的入园须知, 大家都已经坐上了游乐设施。在回大田的大巴上, 大家依旧精神抖擞, 没有一丝倦意。大家在回来的路上分享着爱宝乐园的各种快乐与趣闻。



활동 수업 活动课程

이번 학기에는 다양한 한국 문화를 직접 접해 보며 몸소 느껴 보고, 의사소통 능력을 현장에서 키워 보기 위해 다양한 활동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한국에서의 첫 유학생활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학생들도 만족해했으며, 좋은 기회가 되었다.

为了让学生们真切地感受韩国文化, 为了提高学生对韩语的理解与领悟能力, 在本学期特意开设了形式多样的体验活动。不仅帮助初到韩国的学生尽快地适应韩国生活, 而且还为学生提供了了解韩国文化的空间与平台。这样的体验活动对于学生来说是非常好的机会。



제 3기 공자학원 과정 孔子学院课程

공자학원(孔子學院)은 중국 교육부가 세계 각 나라에 있는 대학교들과 교류해, 중국의 문화나 중국어 등의 교육 및 전파를 위해 세워진 교육 기관이다.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은 2004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공자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는데 공자학원은 공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교 교육이 아닌 어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는 우송대학교를 포함해 여러 기관과 대학에 공자아카데미가 있지만 중국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우송대학교가 유일하다.



1년의 한국 생활을 끝낸 공자학원 3기 연수생의 수료식이 한국어교육원과 공자학원 관계자들의 축하 속에 지난 10월 28일 '솔파인'에서 열렸다. 수료식은 그간의 경과보고와 수료생의 수료 소감, 수료생들의 노래 등으로 알차게 채워졌다.

공자학원 3기에는 모두 10명이 참가해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 등 다양한 곳에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 애썼다. 한국어 수업은 4학기, 학기당 11주로 구성돼 매일 4시간씩 수업이 진행되었다. 한국어 수업은 공자학원 연수생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과 한국 문화 이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고 놀이공원 방문, 한복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도 진행하였다. 공자학원 10명의 연수생들은 지난 7월과 10월에 치러진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5급 3명, 4급 5명, 3급 1명, 2급 1명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孔子学院是中国教育部为了与世界各个大学进行交流, 传播宣扬中文和中国文化而设立的教育机关。世界首家孔子学院设立在韩国首尔。虽然被称作孔子学院, 但并不是为了传播儒家思想, 而是以加强语言交流为目的而设立的语言机构。在韩国, 包括又松大学在内的许多机关和大学虽然都有孔子学院, 但以中国研修生为对象进行韩语培训的教育机构仅有又松大学一家。

10月28日, 在Solpine召开了第三期孔子学院第三期研修生结业式。结束了一年韩国生活的第三期研修生们, 在韩语教育院和孔子学院的祝贺声中迎来了自己的结业式。在结业式上, 不仅观看了他们在韩国学习生活的点点滴滴, 而且毕业生代表还发表了结业感言, 他们还进行了歌曲演唱等表演。

孔子学院第三期总共10名研修生, 在结束了上午的韩语课程以后, 他们下午就到中小学以及Solbridge国际商学院上汉语课, 并且努力传播中国文化。韩语课程共4个学期, 每个学期11周, 每天都有4个小时的课程。在韩语课程中, 以提高孔子学院研修生们的韩语水平和加强对韩国文化的理解作为重点。在此期间, 他们不仅去了游乐园, 还参加了试穿韩服等丰富多彩的体验活动。孔子学院的研修生们参加了7月和10月的韩语能力等级考试(TOPIK), 分别取得了5级3名、4级5名、3级1名, 2级1名的优异成绩。

유학생 말하기 강화 프로그램 留学生演讲能力强化班

제4회 말하기 강화 활동 第4届韩国语演讲强化课程



이번으로 4회째를 맞고 있는 한국어·중국어 말하기 강화 활동은 한국어교육원의 유학생들과 중국어과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중국어를 실제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기획된 활동이다.

이번 학기에는 4개 반에서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각 반은 다시 4개로 조를 나뉘어 총 16개 조가 “자기소개, 미니올림픽, 광고, 영화·드라마 더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말하기 강화 활동은 정해진 활동을 진행한 후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다음 시간에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1월 18일 반별로 치러진 예선에서 총 16개 팀이 자신들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었고 교수들의 회의를 거쳐 총 6개 팀이 선정돼 말하기 발표회에 나가게 되었다. 말하기 발표회에 참가한 6개 팀은 주말도 없이 연습하였고 11월 25일에 치러진 말하기 발표회에서 연극, 홈쇼핑 광고 등 다양한 형식의 말하기 활동을 수행해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이 활동에 참여한 교수진과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됐고 실제 상황에서 의사소통 능력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해 이 활동이 학생들의 말하기·듣기 능력 향상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此次第四届韩语·汉语会话强化活动，是为了给韩语教育院的中国留学生和中文系的韩国学生提供实际沟通交流的机会，互助互利，进而提高听力和会话能力。

本学期共有4个班参加了此项活动，每个班又分成了4个小组，分别进行了“自我介绍、迷你奥林匹克、广告宣传、电影·电视剧配音”等活动。会话强化活动在规定主题的形式下进行，在下次活动开始之前发表上次进行活动的感受以及收获。

在11月18日进行的预选中，16个小组通过自己真挚的表演参加了激烈的角逐。教授们经开会讨论最后选出了6组参加最后的决赛。参加会话比赛的6个组，在周末也在加班加点地进行练习。在11月25号举行的会话发表会中，以话剧、家庭购物广告等多种多样的形式进行了发表，得到了观众们的一致好评。

参加此次活动的全体教职员和学生们都认为，通过这样的活动，不仅能结交新朋友，更能强化学生们的日常口语表达能力，对学生的会话和听力能力上都有很大的帮助。



터줏대감 资深学子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오래한 선배들,
또는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졸업 선배들이 전하는 이야기



한국 유학생생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모든 후배들은 한국 유학생생활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궁금하죠?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역시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다면 우선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한국에 쉽게 융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어렵습니다. 우리 처음 한국어 배울 때, 보통 책이나 드라마로 공부하잖아요. 그렇지만 한국어를 잘 사용하고 싶으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랑 교류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중국 국내에서 공부할 땐 한국인을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한국에 가면 조건은 완벽합니다. 스스로 밖으로 나가서 한국 친구를 찾지 않으면 정말 우리를 1800km 먼 한국으로 보내주시는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한 후에 번역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기업이 요구하는 한국어 실력은 갖춰야 합니다.

그 다음 전공을 꼭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일부 전공 학습 환경이 중국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뷰티디자인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지금 점점 뷰티산업이 성장하는 중국분위기를 보면 반드시 미래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화된 사람이라면 아르바이트를 꼭 해봐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유학생들이 타국에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현지 적응도 빨라집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 중에 한국어도 늘수 있고 한국문화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 뿐만 아니라 우리 유학생들이 지낼 때 인내심도 필요하고 자제력도 필요합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후배들이 성공적인 한국생활을 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成功在韩留学

什么才是算得上是成功的韩国留学生活呢？以下几点归类，希望与各位校友共勉：

1. 学习，你永远的主业学习永远是学生生活的主旋律。
在韩国，首先得学好韩语。拥有一口流利的韩语，在任何时候任何地方，都能很轻松的融入其中。万事开头难，刚接触韩语都是从书本及电视剧上面学习，而真正应用韩语，还得是多和韩国人交流。在国内条件有限，学习氛围也不够充分，韩语学习充其量也就是应试而已。而到了韩国，条件氛围都有了，如果还不动调自己的积极性去找韩国朋友，多去外面跑跑说说韩语，那就真的对不起我们父母辛辛苦苦把我们送到离家1800公里远的地方了。不说毕业后能当个同声翻译，最起码国内各个韩企的语言要求得过关吧。

其次，专业一定要学好！很多人选择去韩国留学，就因为韩国的某个专业比国内的好。就拿形象设计系来说，众所周知，韩国人在化妆方面的本领可谓是登峰造极了，比起开始重视化妆的国人来说，来韩国学习化妆技术，无疑对以后从事化妆行业，还是对自己形象的管理，都是很明智的选择。韩国留学生活，首先学习得学好，才能有信心和动力来迎接以后的挑战。

2. 打工，做国际人的必经之路
可以说打工，是每个留学生在异国他乡必做的一件事。不仅仅为了经济上得以缓解，更重要的是打工的经历使自己融入到当地的环境中去。在工作当中，留学生能够有机会使用韩语，更好的了解韩国文化。这在很大程度上会锻炼留学生的交流能力以及表达能力，对于我们韩国留学生来说，打工既是一种挑战，但同时也会带来巨大的成就感。

在我看来，做好上述之外，还得有忍耐心和自制力。做到以上几点的话，一个成功的韩国留学生活就离你不远了。路是自己的，怎么走，就看你自己怎么规划了。



» 중국동창회 회장 방서

안녕 사진공모전 수상작 「安宁」 照片展获奖作品



» 솔브릿지 1학년 리언



» 운송물류학과 3학년 최척우



안녕 뉴스 「安宁」 新闻

9/23일 동릉대 총장 방문 좌담회 9月23日铜陵大学校长访问座谈会



2014년 9월 23일, 본 대학의 초청으로 동릉대학교 총장 일행이 우송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 5시, 우송대 유학생 지원센터 관계자와 동릉대 총장, 동릉대 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좌담회를 가졌다. 동릉대 총장 일행은 본 대학의 교학 방침과 교수진의 역량과 자질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쾌적하고 우수한 교내 환경과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도 높이 평가했다. 동릉대 유학생들에게는 4가지 사항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먼저 타국에서의 생활은 무엇보다도 '안전'이라며 학생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다음으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한국어 공부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할 것을 당부하였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유학생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다고 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고충이 많으며, 전공 강의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으로 양 대학 간 긴밀한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应我校邀请, 铜陵学院校长一行于2014年9月23日对我校进行了友好访问。当天下午5点, 又松大学留学生志愿中心的相关人员陪同铜陵学院校长一行举行了铜陵学院留学生座谈会。铜陵学院校长对我校的教学方针、师资力量和师资素质等方面都给予了充分的肯定。与此同时, 还对舒适而优越的校内环境及学校为留学生所提供的多样福利政策也给予了高度评价。铜陵学院校长对铜陵学院来韩留学生们做了如下四点叮嘱。第一, 身在异国他乡最重要的是“安全”, 要求学生务必要提高安全意识; 第二, 务必要努力学习专业知识, 成为对社会有用的专业性人才; 第三, 不可放松对韩语的学习; 最后务必要理解并克服两国之间的文化差异。大部分同学们纷纷表示已逐步适应了韩国留学生, 虽然部分学生也表示还有一些需要克服的地方, 特别是在专业课的学习上。通过这次访问, 期待两校间更加紧密的合作与交流。

유학생 선후배 간담회 留学生前辈后辈感谈话会

지난 10월 7일 우송 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졸업생 대표 이가, 동창회장 방서, 이연 등이 방문하였다. 유학생 지원센터와 한국어교육원의 협력으로 이날 오후 3시 도서관 대강당에서 유학생 선배와 신입생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선배와 후배 간의 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为庆祝又送大学建校60周年, 毕业生代表李佳, 同窗会会长方舒和李连等同学于10月7日对学校进行了访问。在留学生支援中心和韩教院的协助下, 当天下午3点各位学生代表在图书馆大讲堂为400余名中国留学生做了专题讲座。

当天的座谈会在友好和谐的氛围中进行。此次座谈会再次体现了又松中国留学生前后辈之前深厚的情谊。



제11회 우송 외국어 경시대회

2014년 11월 20일 오후 3시, 도서관 대강당에서 우송 외국어 말하기 경시대회 한국어부문 본선이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우송 대학교와 솔브릿지에 유학 중인 모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초, 중, 고급 별 1, 2차 원고심사를 거쳐 최종 16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그동안 갖고 닦은 한국어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고, 참가학생을 응원하는 관람학생들 또한 모든 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대상은 중급에서 호텔관광경영학과 3학년 완채하(중국)의 '한국어 완전정복자'가 차지하였다. 그리고 최우수상은 고급에 국제경영학과 3학년 도개리(중국)의 '영차 영차', 중급에 솔브릿지 경영학과 레도민자우(베트남)의 '내 인생의 첫 번째 아르바이트', 초급에 방송미디어학부 왕삼과 국제경영학과 진양의 '김치로 나누는 정'이 수상하였다. 그 외에 급수별 우수상 3팀과 장려상 2팀이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거울학기가 끝나는 오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한국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상으로 주어질 예정이다.



第11届又松外国语演讲比赛

于2014年11月20日下午三点，在又松图书馆大讲堂里举办了韩语演讲大赛。本次大赛是针对又松大学和SolBridge国际商学院的留学生而举办的，分初、中、高三个等级，共进行两次原稿审核，最终16个小组成功晋级。

参加此次大赛的学生们淋漓尽致地把所学的韩语展现了出来。伴随着啦啦队的加油助威声，所有小组都将自己的故事生动地讲述给大家。

中级班酒店管理系三年级的완채하(中国)同学，以《韩国语完全征服者》为题发表了演讲，并荣获此次大赛的一等奖。荣获此次大赛二等奖分别是：高级班国际经营系三年级도개리(中国)同学，演讲主题为《嗨哟，嗨哟》；商学院中级班레도민자우(越南)同学，演讲主题为《我人生的第一次打工》；初级班广播媒体系왕삼和国际经营系진양同学，演讲主题为《用泡菜分享的情》。

所有获奖的同学都被给予机会参加冬季学期结束后的韩国文化体验探访活动，活动时间为1月19日至1月23日。



<대상 : 호텔관광경영학과 3학년 완채하(중국)의 '한국어 완전정복자(韩国语完全征服者)'의 일부 발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이렇게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토픽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높은 급수에 도전하는 사람은 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를 기억하십시오. 산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오르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얼마나 향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토픽시험에서 저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한국어라는 거대한 산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한국어 산이여! 기다려라! 나는 좀 더 나은 실력으로 너에게 돌아오리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곧 내가 모르는 한국어는 없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대장: 酒店观光经营系 三年级 완채하(中国) 同学的“韩国语完全征服者”节选>

学韩语就和爬山一样，我们马上又要迎来新一轮的TOPIK考试，想要考出好成绩的同学势必要会更累一些。但是请记住这些，“山就那么高，固定不变。但是作为登山的人们，我们的力量和实力每天都在增长吗？如果这次TOPIK考试我没有完成自己的目标的话，我会对韩语这座大山说：“韩语山呀，你等着！我很快就会以更好的实力来征服你，你所有的一切将都不在我话下，将没有我不会的韩国语！”谢谢！

Woosong Global Culture Festival

2014년 11월 25일 오후 2시,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우송 글로벌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체육경진대회, 문화경진대회 및 문화교류성과 발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발표회는 1부 개회식에 이어 한·중 외국어실습 교과목 성과 발표 6개 팀의 경합이 있었고, 2부 솔메이트, 한국문화알기, 한국어 말하기, 학술제, 한·중 PPT, 한·중연극, K-POP 경연 등 각종 대회의 우수 팀들의 시연이 있었다. 이날 우송학원의 김성경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송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목표를 이루고 졸업하기를 바라며, 오늘 서로 좋은 솔메이트가 된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친구가 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다음은 오늘 축제의 장의 계기를 마련해 준 서운비 유학생 동문의 짧은 인터뷰이다. 서운비 동문은 우송 60주년을 맞아 60만위안(한화 1억)의 장학금을 기부한 바 있다. 이에 오늘 행사에서 유학생 동문회 CEO고문으로 위촉을 받았다.



又松大学国际文化节

于2014年11月25日下午2点在图书馆大讲堂隆重举办了“又松国际文化节”。在“又松国际文化节”上，对在运动会、文化比赛和文化交流活动中所取得的成果进行了表彰。继表彰大会的开幕式后，进行了韩·中外语学习成果发表，共有六组进行了角逐。在表彰大会的下半部分还进行了Sol-mate、韩国文化理解、韩语演讲、学术节、韩·中PPT、韩·中话剧、K-POP比赛等多种精彩的节目。

又松学院理事长金圣经先生在大会上语重心长地说：“希望又松大学的学子们能在校园里实现自己的目标，并顺利完成学业，像今天这样互助互利，彼此成为好伙伴，并且能活跃在未来世界的大舞台上。”

活动结束后，对又松大学校友中国留学生徐云飞进行了采访。为了庆祝又松大学校庆，徐云飞先生特意向母校捐赠了人民币60万元（韩币1亿）作为奖学金。学校还特此委任徐云飞先生为留学生同门会CEO顾问。



- 서운비에게 한국이란 徐云飞眼中的韩国 -



한국? 제 인생 중 제일 좋은 시절을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보냈습니다. 저의 한국에 대한 대부분 추억은 대전 우송대학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활력이 넘치던 학기 초, 바쁜 교정, 수다스러운 학생들의 모습 이 생각합니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던 친구들과, 독한 잠배를 퍼우며 애정 고민, 가족 고민을 토로하던 친구들로 생각이 납니다. 여행하며 걸었던 서울의 거리들과 부산의 특이한 골목들, 낯설었던 한국의 문화들로 가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한국어 가요제에서 상을 받은 반쯤은 스타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한국을 즐기고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은 외로웠지만 저의 더 젊었던 시절 한국의 밤은 기분좋고 아름답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주 바쁜 삶을 살고 있어 한국과 우송대학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지만 제 가장 소중한 시절의 기억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좋은 시절을 잘 보내기 바랍니다.

韩国? 我一生最美好的时光就是在这里留学度过的。我对韩国所持有的记忆大部分都是在田又松大学里形成的。充满活力的学期初，忙碌的校园学习，絮絮不休的学生们的样子在脑海中盘旋。通宵在游戏中干架的朋友们，抽着味道醇厚的香烟为爱情而苦恼的自己，曾经对自己哭诉家庭烦恼的朋友，这一切仍历历在目。首尔的街道，釜山的小巷，陌生的韩国文化，也时常会显现脑海之中。我在韩国语歌谣大赛中仿佛歌星一般的模样想必大家都不知道吧。虽然我的韩语不是很好，但我懂得该如何去感受韩国的魅力，同时也想将对韩国的爱表达出来。偶尔会感到孤单，但想起那时候享受着韩国美丽夜晚的年轻着的我，还是会感到十分欣慰。虽然现在的生活已经足够让我没有闲暇去回想当年在韩国和又松大学里的日子，但那些永远都将是我最宝贵最美好的回忆。希望大家也能像我一样，好好地珍惜度过一生中这段美好的时光。



제7회 솔브릿지 한국어UCC대회 第7届Solbridge国际商学院韩国语UCC大会

2014년 11월 12일(수) 솔브릿지 4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제 7회 솔브릿지 한국어UCC 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솔브릿지와 솔브릿지 경력센터(CDC)의 후원 그리고 한국어 선생님들의 지도로 「엄청 무서운 영화」, 「해님과 달님」,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외 10편의 UCC가 상영되었다.

이날 대회의 우승은 「엄청 무서운 영화」를 발표한 Urkiya 외 6인 팀에게 돌아갔는데 이 작품은 기숙사에 나타난 귀신이 한국문화에 대한 퀴즈를 낸다는 내용을 그린 비디오프로 재미있는 발상과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대사로 인기와 높은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이날 대회에서 황운광 부총장님과 김진성 학장님이 축사를 통해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금 더 즐겁게 배우고 좀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한국어 UCC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于2014年11月12日(周三), 学校在SolBridge四楼大讲堂隆重举行了第七届SolBridge国际商学院韩国语UCC大赛。SolBridge国际商学院和Solbridge CDC (Career Development Center) 为此次大赛提供了支持与帮助。当天播放了在韩语教师们的大力指导下而制作成功的《极度恐怖电影》、《海与月》、《我现在在韩国》等10部UCC。

由包括Urkiya在内的7名同学共同制作完成的《极度恐怖电影》荣获此次大赛的冠军。这部作品的主要内容: 出现在宿舍里魔鬼打算考考住宿生们, 进行了一场魔鬼与学生们之间的有关韩国文化的智力竞赛。有趣的构思和具有教育价值的台词使得他们在众多参赛者中脱颖而出, 赢得了非常好的评价。在大会进行过程中, 副校长黄云光先生对本次大会进行了致辞。在讲话中黄云光先生反复强调了韩国语学习的必要性, 希望学生们能在学习中享受它, 同时在学习制作UCC作品的过程中掌握更多积极有用的韩语表达方式。



한국어 교육원 문화체험 韩国语教育学院文化体验

가을이 성큼 다가온 햇빛 좋은 9월 27일 한국어교육원 300여명의 유학생들이 에버랜드를 찾았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에버랜드에서 그동안의 공부의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우정을 키웠다. 이날 점심은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밀쿠폰을 주었다. 학생들은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어울려 입맛에 맞는 점심을 먹고 남은 시간을 놀이공원에서 가을을 만끽했다.

완연한 가을, 10월 25일 80여명의 학생들이 경주로 여행을 했다. 가을에 무르익어있는 천년의 고도가 학생들을 반기고 있었다. 토함산 단풍 속에 보석처럼 묻혀있는 불국사는 이번 문화체험에서 당연히 가장 인기 있는 곳이었다. 우리 유학생은 천년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고이 담아 왔다.

秋高气爽的9月27日, 在欢声笑语中韩国语教育院300多名留学生开始了爱宝乐园一日游。同学们在拥有诸多世界闻名的游乐设施的爱宝乐园里, 不仅释放了这段时间累积的学习压力, 同时也加深了与朋友之间的友谊。

大家拿到了可自由购买午餐的meal coupon,不仅品尝到了符合各自口味的美食,而且还度过了愉快的下午时光。

秋色宜人的10月25日, 80多名学生又踏上了庆州之行。庆州这作被誉为“无围墙之博物馆”的韩国千年古都呈现在学生们面前。被淹没在吐含山枫海中的如宝石般的佛国寺, 必然是这次文化体验中最受欢迎的地方。同学们也自然而然地将这座千年古都的美丽收藏在心中。



솔브릿지 문화체험 Solbridge国际商学院文化体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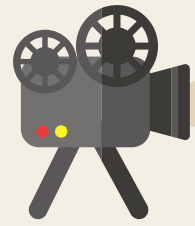
2014년 11월 15일(토)에 솔브릿지 Intensive반 학생들을 위한 서울문화체험과 16일(일) UCC 수상자를 위한 전주 문화 체험이 있었다. 토요일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공간인 경복궁과 인사동, 남산타워 그리고 남산타워 관람 연계프로그램인 뮤지컬 공연을 관람했다. 일요일에는 한국의 맛과 멋의 본향 전주를 찾아 한옥마을과 경기전 관람 그리고 한지공예체험을 하였다.

2014年11月15日(周六) 学校组织Sol-Bridge Intensive班的学生们进行了首尔文化体验之旅; 16日(周日) 学校还为UCC获奖同学们安排了全州文化体验之行。

周六首尔文化体验之旅, 先参观了韩国最具代表性的景点--景福宫和仁寺洞, 随后又登了南山塔, 并欣赏了音乐剧等。周日又踏上了韩国味道与魅力的故乡--全州的体验之旅。大家不仅参观了韩屋和庆基殿, 而且还体验了传统制造韩纸的工艺。

고려대학교
‘제13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高丽大学 “第13届 世界韩国语影像节”

우수상 수상 优秀奖



2014년 11월 5일 오후 3시~6시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제13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개최, 이번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후원으로 개최되며,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의 구수환 PD와 방송인 박정숙씨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우송대학교 전정(CMB대학원), 쇼후루후(솔브릿지) 외 3인 팀이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11월 5日, 高丽大学 “第十三届世界韩国语影像节”于当天下午3点正式拉开帷幕。此次作品征集展是由文化教育观光部和国立国语学院为后援而举办的。同时, 纪录片《不要哭, 苏丹》制片人Gu Suwhan导演和主持人 Pak Jungsuk为评委嘉宾。

包括又松大学钱郑(CMBA大学院)、Shokhrukh(solbridge国际商学院)在内的五人组, 他们所制作的名为《谁都会孤单》的微电影荣获优秀奖。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

쇼후루후는 애저지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유학생인데 건물 공간에 앉아 있다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연극동아리 회장 손재덕을 만나다. 쇼후루후는 회장의 소개로 동아리에 가입하고 동아리 학생들의 이야기로 연극대본 “대화가 필요해”를 쓴다. 연극 무대에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낸 쇼후루후는 용기를 내 애저지에게 연극 동영상을 보낸다. 쇼후루후와 손재덕은 함께 건넌다 쇼후루후 애저지의 전화를 받는다. 애저지는 쇼후루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소통을 시작한다.

Shokhrukh是一名与父亲在沟通上存在障碍的留学生。有一天他坐在教学楼栏杆上被正巧路过的舞台剧社团社长孙再德所看见。Shokhrukh通过社长的介绍加入了舞台剧社团, 社团的成员们将Shokhrukh的故事写进了名为《让我们谈谈吧》的剧本里, 并将此搬到舞台上呈现出来。通过舞台剧的表演而获得勇气的Shokhrukh同学勇敢地制作完成的舞台剧通过邮件发给了自己的父亲。一天Shokhrukh和孙再德会长一道走在路上时, Shokhrukh接到了父亲的来电。父亲通过舞台剧了解到了Shokhrukh的想法, Shokhrukh和父亲的交流就此展开。

한남대학교
‘제10회 전국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 글짓기 대회’
韩南大学 “第10届外国人韩语会话 · 写作大赛”

집현전상 수상 集賢殿獎



지난 10월 7일 한남대에서 한국어 말하기 · 글짓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우송대학교는 중 · 고급 학생 59명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총 27개국 290여명의 외국인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우송대학교는 글짓기 부문에서 장흥이 ‘미인-아름다운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집현전 상’을 수상하였고, 글짓기 부문 단체상인 ‘한겨레’상을 수상하였다. 이곳에는 국제경영학부 장흥의 ‘미인-아름다운 나의 어머니’를 실겠다.

10月7日在韩南大学举行了韩语 · 会话写作大会, 又松大学中级和高级总共59名学生参加了此次比赛。共有来自27国家的290名外国人参加的此次比赛。又松大学国际经营系的张鑫以《我美丽的妈妈》为题, 获得了写作“集贤殿奖”, 又松大学获得了团体奖。

在本期杂志中, 我们也刊载了国际经营系张鑫同学的作品《美人—我美丽的妈妈》。



미인-아름다운 나의 어머니

제 어린 시절, 불행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대로 갑작스럽게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저지에서 하던 장사가 실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어머니께서는 암술을 깨물며 저와 오빠를 데리고 북경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건축 자재를 판 덕분에 잠깐 형편은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삼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주저 없이 장사에서 손을 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 저를 돌봐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좋은 대학교는 놓쳐도 되지만 정순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재수를 포기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美人-我美丽的妈妈

在我小时候,“祸从天降”, 不幸的消息突然地传来。爸爸的生意失败。妈妈在得知这一残忍的事实后, 哭了一整天。第二天, 妈妈意识到不能就这样一直悲伤下去, 于是妈妈下定决心带着我和哥哥去了北京。因为一天都不落的卖着建筑材料, 家庭环境渐渐的好了起来。在我高中三年级时, 妈妈毫不犹豫地放下生意, 回到老家照顾我。妈妈说好的大学可以错过, 但是绝对不可以错过青春。妈妈的话使我放弃复读, 进入大学。随后, 我来到了韩国。

독해 / 회화 / 집중한국어 반 阅读 / 会话 / 集中韩国语

우리 이렇게 지내요! 生活如此多娇



와우신나는 한국어~즐거운 우리반



우리가 누구, 우리가 바로 우송의 댄~스 왕!!!



햇볕만큼 눈부신 집중 3반



오늘은 내가 K-pop 스타다!



빼빼로와 함께...



좋아요! 웃어요! 찰칵!



8반 대박 8반 대박!! 창조하자!! 새로운 미래를



우리들 청춘의 한 페이지



오늘은 내가 주인공!



한국 별★로 온 9반 선비들~참 멋있지요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을 아는 친구들!



꽃속에서 멋진 남자를 찾아보세요



우리는 최고의 요리사



김밥 만들기가 제일 쉬웠어요~!



멋진 가을, 더 멋진 13반



모두 다 김치~



어때요 멋있죠



대한항공 치어리더와 함께 하트 뽐뽐^^



행복한 남자들



안녕 in the world



사천외국어 대학교 충칭세종학당 四川外国语大学 重庆世宗学堂

봄학기 수료식

세종학당 봄학기 수료식이 6월 28일 모든 수강생들이 모인 가운데, 우수학습자 시상과 다채로운 공연이 어울린 가운데 잘 끝났다. 이번 학기에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이 160 명이 넘었다. 568돌 한글날 기념 제3회 충칭세종학당 한글글씨쓰기 대회 김태석 충칭세종학당 집행위원장과 사천외대 진영 학생의 사회로 진행된 본 글씨쓰기대회는 30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아름다운 한글 글씨체를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어과 학생들의 "파파라치" 댄스 공연도 있었다

于6月28日举行了世宗学堂春季学期结业式。所有学生欢聚一堂，不仅进行了优秀学生的颁奖仪式，而且还表演了丰富多彩的节目。

本学期共有160人参加了韩语学习。

在世宗学堂执行院长金泰锡和陈莹同学的主持下，成功地举办了为纪念韩文节第568周年暨第三届重庆世宗学堂韩字书法大赛。共有三百余名学生参加了此次书法大赛。韩语系的学生们还给大家呈现了欢快的歌曲表演。



소주대학교 苏州大学

소주대학 1학년 21명, 2학년 5명 그리고 우송대학 유학생 4명이 함께 한 한국어 수업 이후의 모습이다.

1학년 학생들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총 동원에 2학년과 유학생 앞에서 한국어로 멋지게 자기소개를 한 후, 4개 조로 나누어 이름 맞추기, 몸동작으로 동사 찾기, 간단한 문장 전달하기 등 다양한 게임을 하였다.

照片为苏州大学大一（21人）、大二（5人），以及又松大学韩国留学生（4人）上完韩语课后的合影留念。

大一的同学们调动这段时间学过的所有知识，游刃有余地在大二和韩国留学生面前完成了自我介绍。此后，21位大一同学还被分成4组，兴高采烈地进行了猜姓名、猜词语等趣味游戏。



소주건설교통고등직업기술학교 苏州建设交通高级职业技术学校

소주건설교통고등직업기술학교는 캠퍼스가 두 개이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도 AB반으로 나누어서 한다. 한국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국어로 써보라고 했다.

苏州建设交通高级职业技术学校共有两个校区，所以韩语课也是采用AB班的形式上课。



마안산 사범대학교 马鞍山师范大学

여행과 외국어학부 신입생 환영식

지난 10월 16일에는 여행과 외국어학부 주관으로 2014학년도 신입생을 환영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旅游·外语学部新生欢迎仪式

旅游·外语学部于10月16日成功举办了2014学年新生入学欢迎仪式。



부양사범대학교 阜阳师范大学

재무관리학과 13학번 학생들이 회화 시간에 상황극을 하는 모습으로 첫 번째 여학생들은 사과하는 상황을 더 발전시켜 영화 한 편에 해당하는 줄거리를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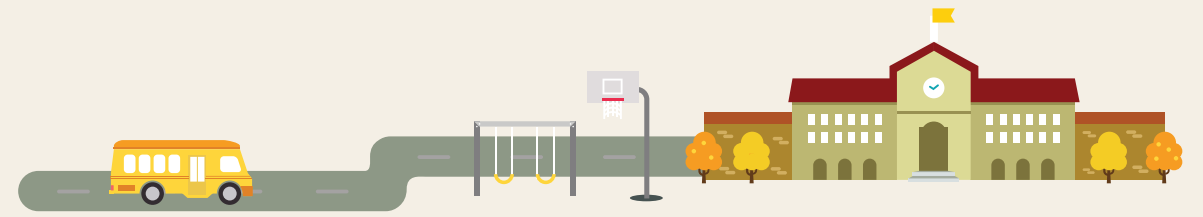
예술 디자인학과 14학번 새내기로 디자인학과 학생들답게 조금은 자유분방하게 적극적인 분위기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财务管理学院13届学生全神贯注地在上韩语会话课。艺术设计系14届新生们在自由轻松愉悦的氛围中正认真地学习韩语。



한산한 가을을 맞이하여 2014년 10월 22일~24일까지 대학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개막식에서 각 학부별 입장식이 진행되었는데 여행과 외국어학부 소속인 중한반 학생들은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또한 23일 오후에 진행된 교직원 체육대회에 권오명 교사와 홍성준 교사, 서징흠 교사가 자유투, 줄다리기, 자전거 느리게 타기 등 여러 가지 종목에 참가하여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在秋高气爽的季节，迎来了一年一度为期3天（2014年10月22-24日）的秋季运动会。在入场仪式上，旅游·外语学部中韩班的同学们身着漂亮的韩服入场，顿时引来全场的轰动。另外，在23日举行的教职工体育节中，权오명老师、홍성준老师、서징흠教师也参加了投篮、拔河、慢骑自行车等趣味比赛项目，在中国体验了别样的运动大会。



황산대학교 黄山大学

2014년 10월 18일, 황산대학교 북 캠퍼스에서 중한반 1,2학년 68명의 학생들이 선후배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다같이 자리를 함께 했다. 노래, 댄스, 기타연주, 오카리나 연주 등 각자의 장기를 열심히 준비하여 뽐내었고, 다양한 게임을 통해 서로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4년 10월 18일,黄山大学北校区中韩1、2班共68名同学欢聚一堂，共同唱响师生情和中韩友爱之情。学生们通过舞蹈、吉他弹奏、歌伴舞、陶笛吹奏等形式多样的表演，奉献了一场精彩的联欢会。通过此次联欢会，加强了学生与老师之间的联系与感情，还为学生们提供了加深了解的平台。

성시건설학교 우송대학교 유학반 城市建设学校 又松大学留学班

밖에는 어느새 찬바람이 불지만 한국어 반 교실은 언제나 화기 애애하다. 처음 배워 보는 한국어가 아직은 어렵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다. 햄버거 하나에도 기분이 좋아지는 우리 반, 사랑해요!!

虽然窗外凉风阵阵，但课堂里同学们学习韩语的热情仍旧十分高涨。即便是才刚刚开始接触韩语，但是每一位同学都非常认真地努力。懂得珍惜、懂得感恩的我们班的同学们，大家是最可爱的！



상주유국군고등직업기술학교 常州刘国钧高等职业技术学校

2014년 10월 25일 오전 8시 학교 축제가 시작되었다. 상무한어과 1318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단아한 여학생들과 능률한 남학생들은 '아리랑' 노래에 맞추어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무용 실력을 맘껏 뽐낸다. 공연을 마친 후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사진도 찰칵!

2014年10月25日上午8点，学校秋季运动会准时开始。商务韩国语系1318班，女生们身着端庄典雅的韩服，男生们也穿着绅士一般的韩装，为大家表演了精心准备的《阿里郎》歌舞。

정강산대학교 간호학과 井冈山大学 护士系

따사로운 가을 햇빛 속에 10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제8회 체육대회가 열려 국제학원 신입생 간호학과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했다.

10月23日至25日，在秋天气爽的时节，学校举办了为期3天的第八届秋季运动会。国际学院护理系的新生们积极踊跃地参加了各项体育比赛。



남경금릉중등기술학교 南京金陵中等职业学

이번 학기에 과외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김밥도 만들어 보고 체육대회에서 응원할 포스터도 직접 그렸다. 교사인 나도 한국 문화 체험 때의 기분을 되살리며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다. 이런 활동들이 아이들의 학습이나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在本学期的课外活动时间，我不仅交给了学生们如何制作韩国紫菜包饭，而且还亲手为运动会制作了宣传海报。作为教师的我也在韩国文化体验过程中找回了家的感觉，让我更有激情教好学生。希望这样的活动对学生们的学习以及生活能有所帮助。

남경특수교육직업기술학원 南京特殊教育职业技术学院

특수교육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김밥 만들기, 한복입기 등 문화 체험을 실시하였다.

本学期与特殊教育大学的同学们一起进行了紫菜包饭体验、韩服体验等多样韩国文化体验活动。



호남대학교 湖南大学

2014-2015년 호남대학교 한국어반 학생들과 올해 줄공, 열공, 파이팅을 다짐하며 기념 사진을 촬영하였다.

2014-2015学期，湖南大学韩语班的同学们经过一年的认真努力学习之后，共同在校园里合影留念。

동릉대학교 铜陵大学

우송대 솔브릿지 반 학생들의 한국지리 공부 시간!
2014년 10월 동릉대학교 회화 수업 날, 이날 동릉대학교 교실에서 한국 지리와 음식에 대한 문화 수업이 진행되었다. 한반도의 지리를 퍼즐로 맞추고 지명을 직접 써보는 활동을 한 후, 직접 교단에 나와 지도를 그리고 설명까지 하는 발표를 하였다.

又松大学Solbridge商学院班的学生们学习韩国地理的时间！在2014年10月铜陵大学的韩国语会话课上，同学们正在专心地学习有关韩国地理和饮食等方面的知识。通过拼图等方式，让学生更加直观地了解韩国，而且还让学生们上台发表。



어학연수

과정소개

1. 수강대상

- 토익 중급(3, 4급) 취득 후 대학 및 대학원 진학 희망자
-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2. 정규과정

기간	10주
강좌내용	• 오전 : 4시간(1일)×5일(월~금)×10주 = 200시간 • 수준별(초급1·2, 중급1·2, 고급1·2) 학습 • 역사탐방, 문화체험 실시

학사 일정 소개

학기	2015 - 봄학기	2015 - 여름학기	2015 - 가을학기	2015 - 겨울학기
기간	2015. 03. 02 ~ 2015. 05. 11	2015. 05. 26 ~ 2015. 08. 03	2015. 08. 24 ~ 2015. 11. 05	2015. 11. 16 ~ 2016. 01. 26
서류접수 마감	2014. 12. 31	2015. 03. 31	2015. 06. 30	2015. 09. 30

비용안내

구분	금액	비고
수업료	1,200,000원	
거숙사비	800,000원	2인 1실
총 금액	2,000,000원	

※ 금액은 한 학기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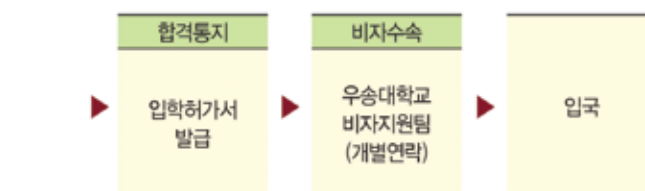
지원 방법

1. 지원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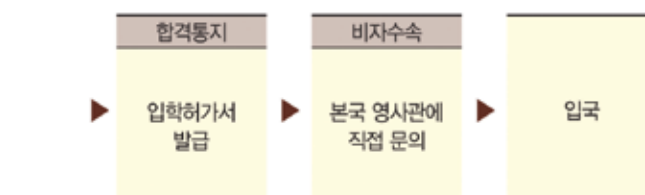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2. 지원절차

중국	상담	지원서류 제출
	• 연락처 : +82-42-629-6673 • 이메일 : wklibest@gmail.com	1. 입학지원서(지원비 USD 60) 2. 호적부 원본 3.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4. 학력인증서 원본 (http://ccv.chinadegrees.cn/cn/) 5. 여권사본 6. 학생 및 학부모 신분증 사본



기타 국가	상담	지원서류 제출
	• 연락처 : +82-42-629-6764 • 이메일 : khj525@wsu.ac.kr	1. 입학지원서(지원비 USD 60) 2. 여권사본 3.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4.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문화캠프

프로그램 일정

▶ 1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9:00 ~ 12:00	입국	캠퍼스 투어 O.T	개설여행	한복체험 한국음식	서울투어	K-pop Dance	출국
14:00 ~ 17:00		학생교류 시티투어			수료식	쇼 핑	

▶ 2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9:00 ~ 12:00	입국	캠퍼스 투어 O.T	한복체험	서울투어	한국어 수업		자유 시간
14:00 ~ 17:00		학생교류	시티투어	K-pop Dance	역사탐방		
09:00 ~ 12:00	자유 시간	개설여행	한국음식	한복체험	수료식		
14:00 ~ 17:00			한국어 수업	한복체험	수료식		

캠프 안내사항

1. 캠프비용

기간	1주	2주	3주	4주	한국어집중(3주)
비용	USD 500	USD 900	USD 1,300	USD 1,600	USD 1,000

※ 세부일정 및 캠프비는 날짜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문의

- 전화 : 영어권 +82-42-629-6764 / 중국어권 +82-42-629-6673
- 주소 : 300-719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도서관 704호
- E-mail : wklibest@gmail.com
- 홈페이지 : http://wklibest.com

언어캠프(한국어, 영어)

▶ 3주, 4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9:00 ~ 12:00	입국	캠퍼스 투어 O.T	수업	서울투어	수업	수업	자유 시간
14:00 ~ 17:00		레벨 테스트 시티투어	수업		수업	수업	
09:00 ~ 12:00	자유 시간	수업	수업	개설여행	수업	수업	자유 시간
14:00 ~ 17:00		수업	한국음식	수업	한복체험		
09:00 ~ 12:00	자유 시간	수업	수업	한복체험	수업	수업	자유 시간
14:00 ~ 17:00		수업	한복체험	수업	한복체험		
09:00 ~ 12:00	자유 시간	수업	수업	한복체험	수업	수업	자유 시간
14:00 ~ 17:00		수업	한복체험	수업	한복체험		

※ 100시간, 수준별 수업

안녕
An-nyeong



 **우송한국어교육원**
WOOSONG UNIVERSITY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300-719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도서정보센터 704호 우송한국어 교육원
TEL. 042.629.6697, 629.6698